Life p/13

외식업계 '저가 커피' 전쟁

metro®

메트로 2015년 1월 28일 수요일 제3145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0

'한신 수호신' 오승환 출국

지하철도 못 다스리면서…

로맨스 바쁜 임세령 경영권은 동생에게? p/16

에스컬레이터 걸핏하면 고장… 서울시 나 몰라라 관련기사 p/23

박태환 남성호르몬 투약 확인

"이학수법 소급적용 위헌 아니다"

아이폰6 애플, 삼성 추월하나

이완구 청문회 9~10일

정부 칼날… 홈쇼핑 노심초사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단통법' 불법행위 감시 강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현역 여단장 긴급체포

육군 현역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27일 긴급 체포됐다고 육군이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의 한 부대(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부대의 여단장 A대령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폭행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해당 여단장을 오늘 오후 3시쯤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A대령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B하사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어제 저녁에 인지돼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체포와 관련해 "A대령을 긴급 체포한 것은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하사는 조사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A대령은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같은 부대의 C소령도 부하 여군 D하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중순 체포됐다.

D하사는 지난 15일 C소령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A대령이 동료인 B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와 D하사는 해당 부대의 독신자장교숙소(BOQ)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yoona1@

유승민 "당이 국정운영 중심"

여당의 새로운 원내사령탑 도전에 나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27일 원내대표직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저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면 당을 정치의 중심에,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과감하게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 제8조가 정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가장 충실한 원내대표가 되겠다"고도 했다.

탈박(탈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유 의원은 "나는 영원한 친박(친박근혜)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정치적, 인간적 신의를 꼭 지킬 것"이라면서도 "원내대표가 되면 청와대·대통령·정부와 대화를 매일 해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당 입장이 옳다면 거꾸로 청와대를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쟁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과 유 의원과의 2파전 양상이다. 유 의원은 "국민이 우리 당에 바라는 변화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면 내가 더 적합한 게 아닌가. 총선에서 승리하는 원내대표는 내가 더 적합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현정기자 jhj@

차명계좌 신고하면 1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인상하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탈세제보 포상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이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징수금액 규모별 지급률도 종전 징수규모 2000만~2억원 15%, 2억~5억원 10%, 5억원 이상 5%에서 탈세제보 포상금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5억원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 5%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세금 관련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시 납세자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신청일 당시 재산평가액이 5억원 이하,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도 정했다.

/조현정기자

"삼성 3남매, 이학수법 적용 가능"

박영선 "친일재산환수법 사례와 같아"

올해 4월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학수법(불법이익환수법안)' 입법을 추진 중인 박영선(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의 법 적용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친일재산환수법이 통과가 됐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친일재산환수법도 한때는 '위헌이다 아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각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니다'고 이미 판결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 발행했다. 이어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자에 포함돼 주식을 받았다. 두 사람은 이 일로 이건희 회장과 함께 2009년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 남매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다. 이학수법의 적용 대상을 두고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친일재산환수법 사례를 근거로 배임과 관련해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라도 불법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법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익과 교묘한 법리를 가지고 법해석을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도 했다.

이 전 부회장 등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형사법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법적으로 접근하면 논란에서 일단 제외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관련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은 5월까지다. 이후 주식교환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어떤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4월국회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며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를 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밝게 웃는 박 대통령과 정몽구 회장 박근혜 대통령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2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마친 뒤 센터를 둘러보던 중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공사 자원마피아, 해외서 억대 뇌물"

석유공사가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인 '숨베(Sumbe)' 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지사장이 억대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중간 에이전트 역시 석유공사 출신으로 28억원을 가로챘다.

새정치연합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낳은 '태생적 비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법원 재판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 지사장인 유모씨의 제안에 따라 현지 석유기업인 숨베사 매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지사장은 현지 브로커에게 매입이 성사될 경우 숨베사의 지분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유 전 지사장은 석유공사 전 직원이었던 김모씨를 현지로 불러 고 숨베사 협상 대리인을 맡은 브로커에게 김씨를 '영향력이 있는 실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매각이 성사될 경우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도록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석유공사가 숨베사의 매입을 성사시키자 현지 브로커는 김씨에게 254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중 유 전 지사장은 김씨에게 2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전 지사장은 검찰 수사를 거쳐 징역 7년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입수했다"며 "숨베사 매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는 핵심쟁점인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송병형기자

더 꼬이는 한미일 동맹

아베 총리 "과거사 반성은 자질구레… 언급 않겠다"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으로 한·일관계 운신 폭 줄어
미 의회조사국 "아베 역사수정주의, 미 국익에 저해"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지만 한·미·일 관계는 오히려 더 꼬일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새해 벽두부터 과거사 반성을 '자질구레한' 일로 매도하며 종전 70주년을 맞아 8월 발표 예정이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운신의 폭을 더 좁힐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 구축이 아쉬운 미국도 곤란해지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아베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내는 등 미국 정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NHK에 출연해 "역대 담화의 핵심 표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답하면서 "문구에 얽매이면 '자질구레한 논의'가 된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아베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반성 등을 담은 고노(河野)담화의 수정에 나선 상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서면서 지지율이 30%까지 추락했다. 한·일 관계는 국민정서상 민감한 문제다.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박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지율 추락을 감수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미국 역시 곤란해졌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외치면서 강한 한·미·일 동맹을 제1목표로 삼았다. 방위비 부담으로 인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내건 일본의 재무장을 사실상 허락했다. 동시에 한·일 간 갈등 원인인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강하게 일본을 압박하는 투트랙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4월 방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 의회도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서는 단호하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동해와 동중국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접근태도는 모두 역내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들"이라며 "이러한 태도는 역사적 적대감을 일으켜 역내 안보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표현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오는 8월은 한국 광복 70주년이다. 동시에 일본에는 종전 70주년이기도 하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 없는 아베 총리의 행태는 한·일 관계를 넘어 한·미·일 동맹을 위협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도하훈련 참관하는 김정은 북한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참관 하에 동계 도하공격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적대정책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노동신문이 27일 게재한 관련 사진에는 김 제1비서가 간부들을 거느리고 훈련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겼다. /연합뉴스

의료영리화 부작용 막는다더니

정부 '요건 미달'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2곳 허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 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했다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이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12월 18일과 19일에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요건 미달인 상태에서 허가했다.

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애초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 2곳에 대해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송병형기자

세수 부족에 '무더기 세법 개정' 추진

소득세·관세·지방재정법 등… 정부 새로운 세원 발굴 나서

정부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무더기 세법 개정에 나선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환급액을 토해 내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부족해진 정부가 빈 곳간 채우기에 나선 셈이다.

법제처는 27일 각 부처가 마련한 주요 추진법안을 취합해 2015년도 정부 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세법을 개정해 비과세소득을 과세로 전환하고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고시와 훈령에서 과세투명성을 제고한다. 지방재정법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 재정위기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지자체 재정회생 제도를 마련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 지자체 회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회계법도 제정되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정비하고 취득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도 일부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논란이 된 주민세·자동차세 증세안은 이번 입법 계획에서 제외됐다.

법제처는 이들을 비롯해 287개 법안을 오는 10월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률안은 자동 폐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병형기자

필리핀 '납치 한국인 4명' 풀려나

외교부는 27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4명이 몸값을 요구하는 괴한에게 납치됐다가 나흘 만에 풀려났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마닐라에서 22일 피랍된 우리 국민 4명이 26일 오후 11시 30분께(한국시간) 모두 풀려났다"며 "필리핀 경찰은 석방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납치범 검거를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한국인 30~40대 남성 4명은 지난 22일 오전 마닐라 북쪽 산후안시에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업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납치됐다. 범인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화 2억여원 상당의 몸값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아기자 yoona1@

일본 보고 있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나치 만행을 되새겨 기억하는 것은 독일인의 항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AP 연합뉴스

마추픽추 '바가지요금' 악명 높아

metro Peru

최근 한국인에게도 인기있는 페루의 유명 관광지 마추픽추가 바가지요금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메트로페루는 산 마르틴 데 포레스 대학 산하 페루 관광산업 연구소(OTP)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마추픽추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 수는 29만8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8%나 줄었다고 최근 보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4.7% 증가해 84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현상은 마추픽추의 바가지요금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마추픽추의 내국인 일반인 입장료는 126솔(약 4만5000원)로 외국인 관광객과 같다. 이는 페루의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약 1만1000 달러)가 한국의 30% 불과해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주변 숙박·음식 요금도 급등했다.

페루 문화부는 줄어드는 내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올해 초부터 내국인 입장료를 64솔(약 2만3000원)로 대폭 내렸다. 특히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안데스 공동체 국가 국민들도 동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메트로페루는 '꽃보다 청춘' 등 예능 프로에 소개되며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마추픽추가 2015년 페루의 국민 관광지로서의 명예도 회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리 이국명기자

삼성 스마트폰 세계 1위 '흔들'

애플 아이폰6 앞세워 맹추격… 역전 가능성도 '솔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독주가 흔들리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6(사진) 흥행에 힘입어 삼성의 스마트폰 왕좌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판매 호조에 탄력받아 삼성이 보유한 전세계 스마트폰 판매율 1위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영국의 시장 조사 전문 회사 캐널리즈에 따르면 삼성은 2011년 3분기부터 스마트폰 제조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동안 애플은 2위에 머물러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애플의 스마트폰 신작 아이폰6 시리즈가 출시된 이래 삼성과 애플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다. 대화면을 채택한 아이폰6는 역대 아이폰 시리즈 중 최고 수준의 판매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3분기 삼성은 78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해 전세계 시장 점유율 2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34%보다 감소한 수치다. 갤럭시 시리즈의 부진과 경쟁사 애플·샤오미의 약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애플은 지난해 가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출시한 후 판매율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 애플이 약 6650만대의 아이폰을 판매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일부 전문가들은 7000만대에 이르면서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할 것으로도 예상했다.

한편 애플은 27일, 삼성은 29일에 2014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6 특수를 앞세워 사상 최대의 분기 순이익을 거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지난 분기 매출이 6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크리스 존스 캐널리즈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이같은 성장은 2011년 3분기 삼성에 시장 1위를 내준 이래 가장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최악의 눈폭탄'이 내린 26일(현지시간) 뉴욕 시민들이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뉴욕 '최악의 눈폭풍'… 휴교령에 야간통행 금지

뉴욕 등 미국 동북부 일대에 '최악의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역사상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위력을 지닌 이번 눈폭풍으로 인명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AP·AFP·CNN 등 주요 외신들은 인구 6000만 명 이상이 사는 미국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등 5개 주에 최고 1m 안팎의 폭설과 '허리케인급'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예고됐다고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들 주에는 2012년 '허리케인 샌디' 때를 연상케 하는 초비상이 걸린 상태다.

미국기상청(NWS)은 이날부터 이틀 간 뉴저지 주에서 캐나다 접경인 메인 주에 이르는 지역에 대해 '눈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35시간에 걸친 악천후는 특히 뉴욕과 보스턴을 강타하고 26일 밤에서 27일 새벽에 걸쳐 맹위를 떨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따라 뉴욕주는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한 직장인에게도 조기 퇴근을 권고했다. 뉴욕 시를 포함한 13개 카운티에서는 야간 통행금지도 실시한다. 대부분 학교는 이날 조기 하교에 이어 27일 휴교를 결정했다.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다. 항공기 6000여 편이 운항 계획을 취소했다.

대형마트와 주유소는 휘발유, 장작, 발전기, 식료품 등을 미리 사려는 주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빵, 생수, 제설장비, 통조림 등이 바닥나는 상점도 속출했다.

미국 의회도 폭설 여파로 의사일정을 연기했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인신매매 근절 등과 관련한 법안 6건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동북부 지역 의원들의 참석이 힘들 것으로 보고 표결을 취소했다. 28일 예정된 국경강화법의 처리도 미뤘다.

/이국명기자 kmlee@

뱅카 한도 늘리고 진입장벽 낮추고

금융위 "핀테크 전방위 육성…ICT 융복합 지원"

오는 하반기부터 뱅크월렛카카오(이하 뱅카)를 하루 2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자를 위한 최소자본금 규제가 50% 이상 줄어들며 IT기업이나 제조업체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도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핀테크(Fintech) 등 IT와 금융 융복합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제패러다임 전환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 ▲핀테크 산업 육성 등 3가지 핵심 지원방향을 토대로 ICT금융 융복합을 지원키로 했다.

◆사전 규제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신 각 금융사의 내부심사 등 자체점검을 내실화한다.

소비자 배상을 위한 책임이행보험 가입 최저한도는 현행 1억~2억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핀테크 관련 비조치의견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지분참여 제한(4%)을 1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분제한 없이 별도 금융위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도적·행정적·재무적 지원

다양하고 편리한 송금을 위해선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와 이용한도가 확대된다.

특히 뱅크월렛카카오나 티머니에 담을 수 있는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없어지며 직불전자지급의 1일 이용한도 또한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별도의 지원센터가 마련된다. 신생 핀테크 기업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 1000억원의 자금대출 또는 직접투자를 통해 자금도 지원한다.

전자금융업에 들어오는 진입장벽 역시 대폭 낮아진다.

금융위는 현재 7개로 구분된 전자금융업을 3~4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전자금융업의 최소자본금 규제를 현행 5억~20억원에서 50% 이상 줄일 방침이다.

PG(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등록여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키로 했다.

◆선진형 규제방식 도입

한편 금융보안을 위해선 금융권역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공시와 온라인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1952.40 (+16.72)	587.84 (−2.50)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03 (+0.01)	1078.00 (−4.20)

뉴스&뉴스

"사랑의 저금통 받으세요" 포스코건설은 올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양(羊) 모양의 저금통 5000개를 제작, 임직원에게 지급했다.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연말연시 지역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포스코건설 제공

롯데건설, 올해 첫 분양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롯데건설이 3월 중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올해 첫 분양에 돌입한다.

신도시급 복합개발단지인 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앞서 지난해 상반기 1·2차 아파트(2035가구)와 오피스텔(178실)을 공급해 단기간 내 100% 계약 마감에 성공한 바 있다.

1·2차 완판 행진을 이을 복합단지 내 마지막 아파트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는 지하 5층, 지상 47층, 6개동, 전체 1236가구 중 105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 ▲59㎡ 739가구 ▲84㎡ 318가구다.

국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도보거리이고, 금천IC·일직IC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강남까지 20분대로 이동 가능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내년, 신안산선이 2018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내 호텔·롯데마트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도 계획돼 있다. 또 5만3433㎡ 규모의 공원과 사업지와 인접한 대한전선 부지에 1000병상 이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도 건립될 예정이다.

정찬문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소장은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는 올해 롯데건설의 첫 분양으로 다시 한번 지역주민은 물론 주택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겠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1·2차 때와 같은 금천구 독산동 424-1번지 일대 마련됐다. /박선옥기자 pso9820@

임대주택 리츠 개인 투자 받는다

경기 화성 동탄2지구 등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임대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이 개인으로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리츠 3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P-ABS 중 200억원을 28일부터 개인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P-ABS는 공공임대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한주택보증(AAA등급)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원리금을 보증해 원금손실 리스크가 낮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

이번에 발행하는 3호 P-ABS의 금리는 '3.40%'와 'ABS발행일 직전영업일의 15년 만기 특수채(공사채·공단채) AAA 등급의 민평평균수익률+0.50%' 중 높은 금리로 결정된다. 만기는 13년 11개월이다. 공공임대리츠 금융주간사인 NH투자증권 전 영업점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P-ABS 개인 공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현재 추진 중인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옥기자 pso9820@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센터 첫 돌" 해외건설·플랜트 기업에 정책금융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 지원센터'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참석자들이 축하떡을 자르고 있다. /수출입은행 제공

삼성화재 안민수號 지난해 실적 호조

자동차손해율 급증, 국내시장 경쟁 심화 등 불안요소 산재

지난 2013년 말 선임된 안민수(사진) 삼성화재 사장이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첫해를 마무리했다. 특히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국내시장의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올해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독주체제를 굳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지난해 9월 말 자산규모는 54조7046억원 안 사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13년 말(48조7858억원)보다 12.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3분기(1~9월)까지 701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4~12월) 대비 21.9% 늘었다.

삼성화재는 특히 온라인자보 시장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

손해보험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자보시장에 뛰어든 지난 2009년 500억원에 그쳤던 매출이 지난해에는 8829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시장점유율도 2.6%에서 21.9%로 급등했다.

미국·중국·인도 등 11개국 해외사업의 지난해 실적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해외사업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다. 베트남의 시장점유율은 1%대를 기록해 현지에 진출한 외자보험사 중 점유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지난해 호실적이 올해에도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자보와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고 국내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보를 판매한 18개 손보사의 지난해 적자액이 4년 만에 1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장기보험 손해율도 악화되고 있다. 삼성화재를 포함한 주요 7개 손보사의 지난해 9월 기준 장기보험 손해율은 평균 85.1%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83.0%)보다 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는 지난해 4분기 7개 주요 손보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5%, 전분기 대비 52.1%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올해 업계불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사업 건실화와 해외사업의 본격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창조금융'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올 한해 경제 혁신 실현 방안으로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 기술금융 등 '창조금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금융융합 트렌드를 반영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해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발맞춰 주요 은행들도 전담부서를 개편하는 한편 관련 상품을 마련하는 등 창조금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조금융으로 '성장+경쟁력' 두 토끼 잡는다

기술금융 선도…'지능형 뱅킹' 도입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기술금융 선도로 창조금융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창조금융의 성공모델 구축을 위해 기술평가 기반의 기술금융 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기술금융은 혁신적인 중소기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과 투자 심사 시 기술평가를 의무화해 우수 IP·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술평가 실적은 여신 5755억원과 투자 482억원 등 총 559건에 달한다.

기술평가 업무 프로세스 일체를 전산화한 기술평가업무시스템(T-Value)도 구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시중은행 최초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IP사업화자금대출'을 출시, 지난해에만 70개 기업에 438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오는 9월 중 대출한도를 1000억원으로 증액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IBK캐피탈과 공동으로 300억원 규모의 'IP창조 투자조합'을 결성, 우수 IP 보유기업의 투자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에는 'IBK 기술금융 희망투어'를 실시해 시화·오송·창원 등 기술집약 공단지역 현장에서 기술금융과 관련한 중소기업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올해는 차별화된 기술금융 브랜드를 런칭해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기술중심형 초기벤처기업 투자를 전담할 벤처금융팀을 신설하고,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핀테크 시장 선점을 통한 창조금융도 기업은행의 주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IT신기술을 보유 기업과의 제휴사업을 적극 추진해 '신모바일지급결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고객의 거래패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 '지능형 뱅킹(Intelligent Banking)' 시스템을 도입, 스마트금융 시장에도 뛰어들 계획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지난 23일 열린 영업지점장회의에서 "올해는 핀테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글로벌 100대 은행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권선주(오른쪽) IBK기업은행장이 23일 충주연수원에서 '2015년 전국 영업점장 회의'에서 올해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금융 선도지위 강화 ▲핀테크 산업 주도 등 올해 핵심 과제가 발표됐다.
/IBK기업은행 제공

카카오 통장·핀테크사업부 신설

우리은행

최근 우리은행 영업점은 때아닌 카카오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나온 모바일 결제 전용통장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의 가입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란 바탕에 7개의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 통장은 출시 두달만인 지난 5일 2만5000좌를 돌파했다.

인기 캐릭터와 스마트 뱅킹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새로운 금융 소비시장을 자극한 것이다.

이는 금융권 공동전자지갑인 '뱅크월렛카카오' 충전계좌로 활용할 경우 연 1.0%(50만원 이하)의 금리우대 혜택을 주며,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와 ATM현금출금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특히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전용통장과 현금카드는 우리은행에서만 발급된다. 우리은행은 다음카카오와 서비스 기획부터 디자인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 만들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ICT기업과 은행이 서비스 기획부터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공동창작)으로 만들어낸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 트렌드를 선도하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기존 스마트금융부와는 별도로 핀테크 사업부도 신설했다.

은행권 최초로 나온 핀테크 사업부는 900만 스마트뱅킹 가입 고객을 활용한 독자적인 간편결제와 이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

또 ICT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저비용성 자금조달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상품판매채널을 이끌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FIS·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별도 설립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정부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핀테크 사업 로드맵을 구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웹 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톡 상담'과 '펀드 화상상담' 시스템도 마련됐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아파트론(가칭)'도 상반기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IT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은 피할 수 없는 물결"이라며 "기술금융과 핀테크로 금융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스마트워치·금융센터 도입

NH농협은행

직장인 하지훈(34)씨는 요 몇년 새 은행에 발길을 끊었다.

스마트폰과 PC 등을 통해 웬만한 금융서비스는 한 자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가 최근에는 손목시계를 통해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고 거래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ICT를 기반으로 한 금융 융복합 서비스가 금융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최근 스마트 워치를 통해 계좌 잔액과 거래 내역 조회가 가능한 'NH워치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핀테크(Fintech)의 일환으로 나온 이 서비스는 손목에 착용해 사용하는 웨어러블 핀앱(Wearable Finapp·착용형태 금융앱서비스)으로 비밀번호만 누르면 본인인증과 계좌 잔액, 거래내역조회가 가능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뱅킹을 넘어 스마트워치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나온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애플워치와 타이젠OS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라며 "스마트금융을 선도하는 핀테크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금융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하 NH농협은행장 역시 신년사를 통해 "기술금융 확대와 핀테크(Fin-tech) 도입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전사(全社)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뱅킹' 서비스도 손질됐다. '스마트 뱅킹'서비스에는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 등이 표시되는 '나만의 스마트뱅킹'과 글자를 확대해주는 '돋보기 이체', 금융 상품을 조회·가입할 수 있는 '금융센터' 서비스가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전 단계인 '스마트 금융센터'를 오는 4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금융센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모든 비대면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의 요구를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 최적의 상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백아란기자

돌아온 검투사 황영기 '금융 엘도라도' 노린다

신임 금투협회장 다음달 4일 공식 취임
중소기업 지원…시장 개척 칼 빼들지 관심

공격적인 추진력으로 '검투사'로 불리는 황영기(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5년 만에 금융업계로 돌아왔다.

최근 제3회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서 예상 밖 완승을 거두며 차기 회장 자리를 거머쥐었다.

삼성맨 출신으로서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를 두루 거친 네트워크로 정부와 국회에 업계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는 대외 협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시장과의 소통을 내세우며 지난해 말 부임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투자업계의 요구를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반영됐다.

지난 20일 황영기 신임 금투협 회장은 임시총회 1차 투표에서 50.69%로 과반수 표를 획득해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김기범 전 KDB대우증권 사장과 결선 투표까지 가며 접전을 벌일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힘 있는 금투협'을 원한 당연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과 금융지주 등을 두루 거치며 쌓은 정·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와 당국이 업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만들 인물이란 기대감이 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황 신임 회장은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삼성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지주 회장 등을 거쳤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캠프에도 참여하는 등 정·관계 소통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수년째 국내 증시가 침체된 상황에서 각종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에 칼을 꺼내 들 인물이 필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하면서 업계 이익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의 충돌을 감수할 정도의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준 황 신임 회장을 금융투자업계가 선택한 이유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중소형 금융사와 중소기업 육성을 어느 정도 완수한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갈 적임자가 속속 새 수장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업인과 코넥스기업 대표 등을 초청한 자리에서 '죽기살기(죽어도 기술금융, 살아도 기술금융)'라는 건배사를 외치며 금융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박종수 현 금투협 회장은 비상장 유망기업의 장외주식거래 시장인 'K-OTC' 시장을 출범시킨 공로가 있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 역시 임기 막판 모뉴엘 대출사기 사태가 불거져 나오긴 했지만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지원 등에 힘써왔다.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고른 성장의 토대가 어느 정도 다져진 상황에서, 업계를 이끌 다음 수장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애물을 헤쳐나갈 인사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황 신임 회장은 공약에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과 10년 이상 장기펀드의 비과세 적용, 파생상품 관련 규제 완화, 중소형 증권사의 미래 먹거리인 특화형 증권사 육성 등을 내세웠다.

다만 그의 이런 장점이 빛을 발할지 아니면 퇴색될지는 임기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는 과거 금융사 수장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다.

KB금융이 지주사로 전환한 뒤 첫 수장으로 부임한 그는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낼 당시 파생상품 투자 실패가 문제가 돼 2009년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진했다.

그는 금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최소 소송에서 3년간의 공방 끝에 지난해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하는 등 금융당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워 검투사 기질을 또 한 번 발휘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성형주, '성형 한류'로 강세

성형주가 '성형 한류'로 인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여성들이 한국을 방문해 성형외과를 찾거나 현지에서 한국 업체들의 필러, 보톡스 제품을 애용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에 중국의 한국 성형·미용 관련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성형주'도 급부상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 성형 전문 병원이 상장된 경우는 없다.

대신 성형 관련 의료기기, 보형물, 미용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덕을 보고 있다.

메디톡스, 휴온스, 휴메딕스, 한스바이오메드, 루트로닉, 리젠 등이 성형관련주 대표 종목들이다.

올 들어 이들의 주가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필러와 골관절염 등 히알루론산 응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휴메딕스는 1월 동안 주가가 111.56% 상승했다. 4만3250원(2014년 12월 30일 종가)에서 9만1500원(2015년 1월 26일 종가)으로 주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어 미용마스크팩 판매 업체 리젠(45.86%), 필러·보톡스 업체 메디톡스(23.44%), 보형물과 뼈이식재 판매업체 한스바이오메드(19.56%), 레이저 의료기기 연구개발·제조 전문업체 루트로닉(16.09%), 필러 업체 휴온스(6.26%) 등이 상승세를 이었다.

한편 성형주의 급부상을 단기 과열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피부미용 관련 상품들의 단가가 비교적 낮아져 경기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며 "중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성형관련주 전망은 대체로 밝다"고 평했다.

하지만 그는 "성형 관련주가 '테마주'로 꾸려져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보라기자 purple@

기아차, 실적 악화에 주가 곤두박질

기아차 주가가 실적 부진의 여파로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 주가는 전거래일 보다 2.26% 하락한 4만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기아차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전날에는 그간 지켜오던 5만원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지난 23일 이후 외국인은 기아차를 약 622억원 어치 순매도했다. 이날도 매도 상위 창구에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UBS 등 외국계 증권사 다수가 올랐다.

이재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신형 쏘렌토와 카니발 등 신차 판매는 호조를 보였으나, 루블화 약세에 발목을 잡힌 것"이라며 "하반기 볼륨 신차 기대감과 오는 2016년 멕시코 공장 가동 등 기존 투자 포인트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김민지기자

연 8.3% 하이파이브 상품 등
파생결합증권 등 11종 출시

미래에셋證, 파생결합증권 등 11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8.3% 하이파이브(Hi-Five)형 ELS상품을 포함, 파생결합증권 등 11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총 1600억 규모로 판매된다. /미래에셋증권 제공

中투자 설명회도 잇달아 열려

주요 증권사들이 최근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후강퉁(중국 상하이증시와 홍콩 증시간 교차거래) 투자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후강퉁에 직접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인 '대신 밸런스 후강퉁 랩'을 선보였다.

후강퉁(상해A주) 종목 가운데 중국 정부 정책과 트렌드에 맞는 저평가된 고배당주, 내수소비 우량주에 집중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소가입 금액이 2000만원이다.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 과세만으로 분류과세된다는 게 특징이다. 고액투자자일수록 중국본토펀드에 투자해 매매차익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것보다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액 제한 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하고, 최소가입금액 초과 분에 대해 부분 출금도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중국본토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후강퉁 고고 이벤트'를 오는 3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영업점에서 해외주식 거래를 신규 신청 후 후강퉁 100만원 이상 매매고객 전원에게 5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누적 매매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한 1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해 여행상품권과 50명을 추첨해 거래 금액에 따라 투자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투자와 관련된 설명회도 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전국 56개 지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후강퉁 전국 동시 투자설명회'를 28일 개최한다.

이번 동시 투자설명회는 중국 시장에 정통한 각 지점 차이나 리더가 '후강퉁 투자전략과 추천종목'에 대해 소개한다.

신한금융투자도 '후강퉁 상해주식 유망종목 세미나'를 다음달 6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삼성동 코엑스센터 4층 컨퍼런스룸(남) 401호에서 열리며,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2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주제는 '상해주식 장기투자 유망종목과 중국정부 정책수혜종목'으로, 중국 신은만국증권의 수석 애널리스트 엘리 찬이 강연을 맡는다. 2부에서는 중국주식 전문 투자정보사이트 트루차이나의 이승준 대표가 '상해주식 상반기 유망종목 및 사례분석을 통한 유망주 발굴'에 대해 전할 예정이다.

/김민지기자 minji@

특가항공권,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LCC 5개사 "피자 한 판 가격이면 제주도 여행"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함께 항공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국적사별 저렴한 운임을 비교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승객이 늘고 있다.

이에 LCC들은 자사를 기준으로 항공권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을 소개했다.

27일 각사에 따르면 진에어는 백화점 정기세일 개념을 도입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2차례씩 정기적으로 온라인 특가 기획전인 진마켓을 연다.

진마켓을 통해 자사가 운항하는 각 노선의 항공권을 연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진마켓은 진에어의 취항 노선 중 14개 국제선, 1개 국내선과 3월 취항 예정인 일본 오사카 노선까지 총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월 5일까지 열린다.

판매 대상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 사이 운항하는 항공편이다.

특가항공권은 진마켓 사이트와 진에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에어부산 역시 1년에 2번 있는 초특가 정기 할인인 플라이&세일을 이날부터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에어부산이 운항 중인 12개 국제선(일본 3·중국 5·동남아시아 4)이 모두 이번 할인행사에 포함된다.

이벤트를 통해 판매되는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3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기존 운임 대비 국제선은 최대 75%, 국내선은 93%까지 저렴하다고 사측은 전했다.

모든 항공권에는 최대 20kg의 무료수하물이 허용된다.

하반기 플라이&세일은 7월에 열릴 예정이다.

에어부산은 국제선 묶음항공권인 바스켓도 선보인다.

바스켓은 국제선 항공권 3장을 특가항공권 대비 최대 65%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발권한 뒤, 첫 번째 항공권 여정은 당일 확정하고 2~3번째 여정은 6개월 안에 정해 이용할 수 있다.

탑승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제주항공은 찜 특가를 29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진행한다.

해당 항공권은 3월1 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대구~제주 등 4개 노선이 동일하게 2만8300원부터 시작한다.

아울러 제주항공은 위탁수하물 없이 기내반입 수하물(10kg까지 허용)만 들고 타는 짐 없는 승객에게 최대 95%까지 할인되는 초특가 항공권을 판매한다.

△국내선 1만5900원 △일본 4만8800원~5만5500원 △동남아 6만4400원~6만9400원 △괌/사이판 7만6900원~8만6100원 수준이다.

이는 라이언에어와 이지젯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LCC들이 일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국적 LCC 중에서는 최초라고 사측은 전했다.

이스타항공은 통상운임 대비 40~75%의 할인율이 적용된 타임핫세일을 3월 27일까지 진행한다.

판매노선은 김포·청주·군산~제주 국내선이며, 탑승기간은 3월 28일까지다.

운임은 주중 2만9700원, 주말 3만1700원, 주말할증 5만2700원부터 시작한다.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2~3개월 후에 탑승하는 항공권을 미리 사는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진행한다.

2월 4일 얼리버드를 통해 판매할 예정인 특가항공권 대상은 4월에 떠나는 국제선이다.

윤성범 티웨이항공 홍보팀장은 "너무 먼 훗날의 일정은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승객이 실제 여행을 계획하는 2~3개월 전에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수소경제' 선도

광주혁신센터 사업모델·기술개발·창업 총체적 지원
가정에서 전기 생산… 송전탑 사라지고 에너지 자립

현대차그룹이 27일 출범시킨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차 연관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수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생산이 쉬워 궁극의 차세대 에너지로 꼽히며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커 최근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광주 혁신센터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창업을 활성화활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과 전문가 멘토링·컨설팅을 통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수 창업팀은 현대차 벤처플라자와 연계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연관산업과 기술·벤처를 발굴 육성하고, ▲친환경 복합 충전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능이 결합된 융합스테이션 플랫폼을 구축하며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네트워크 마련과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산화와 성능향상 등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손을 잡는다.

연료전지 분리막 개발(코멤텍), 연료전지용 가스켓 소재 개발(전남대·금호폴리켐), 수소안전 저장·이송 기술개발(하이리움), 수소연료전지차 V2G(친환경차 충전 전력 외부 송전기술)용 인버터 개발(시그넷시스템) 등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가 시행된다.

또 융합스테이션 플랫폼도 구축한다. 융합스테이션은 압축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수소와 전기 등의 에너지를 만들어 판매, 저장, 분산발전할 수 있는 충전소를 말한다.

융합스테이션을 활용하면 연료전지발전 사업과 V2G 시범사업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의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고 관련 제품과 기술의 성능도 평가할 수 있다.

광주 혁신센터는 아울러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지역 대학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광주 혁신센터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 개발과 검증 사업, 그리고 창업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15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이미 조성했다.

광주는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방산업과 연구·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3대 부생수소 생산기지가 광주에서 멀지 않은 여수산단에 있고, 광주과기원·전남대·자동차부품연구원·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등의 연구 시설도 갖춰져 있다. 연료전지(40여개), 모터(20여개), 배터리(10여개), 인버터(10여개) 등 수소연료전지 분야 관련 기업도 80여 곳에 이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수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가 구현되면 수소 생산과 저장, 연료전지 발전기 등 연관산업이 함께 발전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기자

쌍용차 티볼리 'T-페스티벌'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 www.smotor.com)가 대표적인 토종 커피전문점 브랜드 탐앤탐스와 손잡고 다양한 '티볼리' 공동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쌍용차와 탐앤탐스가 함께 하는 공동마케팅 캠페인 'T-페스티벌'은 어번 다이내믹(Urban Dynamic) 스타일을 지향하는 '티볼리'의 제품 성격과 타깃 소비자층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기획됐다. 행사명은 '티볼리(Tivoli)'와 탐앤탐스(TOM N TOMS)의 공통 이니셜 'T'를 활용했다고 쌍용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탐앤탐스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태국 등 세계 6개국에 4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트렌디한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토종 커피브랜드다. 신선하고 풍부한 맛의 커피와 더불어 프레즐과 같이 특색 있는 베이커리 메뉴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양사가 '티볼리' 출시를 기념해 진행하는 'T-페스티벌' 응모를 원하는 고객은 탐앤탐스 매장을 방문하여 쟁반 위의 트레이매트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이벤트 페이지로 접속, 구매영수증에 표기된 개별코드를 입력하여 응모할 수 있다.

행사는 2월 22일(일)까지 전국의 탐앤탐스 매장에서 한다. 추첨을 통해서 ▲티볼리(1명) ▲여권지갑(50명) ▲탐앤탐스 기프트카드(3만원, 100명)▲탐앤탐스 델리 프레즐 세트(500명)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벤트 참가나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는 사람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티볼리 오토매니저 공식 블로그(blog.smotor.com)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훈기자 fun@

(왼쪽부터)'갤럭시 A 스토리그래프전'에 참여한 여행작가 권준오, 원더걸스 예은, SNS 시인 최대호, 랩퍼 빈지노, 가수 선미, 스포츠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 영화 감독 박가희가 함께 '갤럭시 A'로 셀피를 촬영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갤럭시 A 스토리그래프전' 개최

삼성전자, 갤럭시 A5·A7 출시 기념한 셀피 전시회

삼성전자는 2월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갤럭시 A 스토리그래프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시회는 풀 메탈 바디에 강력한 셀프 카메라(셀피) 기능을 갖춘 '갤럭시 A5'와 'A7'의 출시를 맞아 해당 제품으로 직접 촬영한 셀피를 전시하는 행사다. 피겨 스케이팅 박소연 선수와 김해진 선수, 배우 서강준 등 유명인과 다양한 스토리를 가진 다수의 일반인들이 함께 참여해 작품을 전시한다.

27일 오프닝 행사 현장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김자인 선수, 랩퍼 빈지노와 함께 이들의 사진에 개성 있는 스토리를 불어넣은 여행 작가 권준오, 영화감독 박가희, SNS 시인 최대호 등이 참석했다.

김자인 선수는 실제 암벽 등반하는 모습을 '갤럭시 A5'의 500만 화소 고화질 전면카메라에 담았으며 '갤럭시 A' TV광고 모델인 빈지노는 최대 120도의 넓은 화각의 '와이드 셀프 샷' 기능으로 광고 촬영 현장을 담은 셀피를 선보였다.

전시회가 열리는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는 관람객이 휴식과 작품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이 마련된다. 또 갤럭시 A의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셀피 체험존'도 함께 운영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LG 北美 시스템에어컨 대결

현지 냉난방공조설비 박람회서 혁신 제품 공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시스템에어컨으로 북미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27일 양사에 따르면 26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서 열리는 냉난방 공조 설비 박람회 '2015 AHR 엑스포'에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용량' 제품을, LG전자는 '고효율' 제품을 각각 앞세워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특히 지난해 인수한 콰이어트사이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걸쳐 500여개 유통망을 보유한 공조 유통업체인 이 업체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세계 최대 수준인 16톤 용량을 갖춘 DVM S를 새로 선보였다.

DVM S는 실외기 크기를 기존 대비 40% 가량 줄이고 건축물에 미치는 하중도 30% 가량 줄였다. 겨울철 기온이 크게 낮아지는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온 난방시 냉매 순환량을 25% 증가시켜 영하 25도의 혹한에서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다.

이 밖에 이달 초 열렸던 CES 2015에서 선보인 벽걸이 에어컨 '트라이앵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DVM S 워터, 덕트형 에어컨, 원격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도 선보인다.

LG전자는 185㎡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전년 제품보다 효율을 크게 개선한 '멀티브이4'와 '멀티에프', 편의 기능을 추가한 '멀티브이' 시리즈 실내기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멀티브이4는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를 장착해 북미 최고 통합냉방효율(IEER) 36을 달성한 제품으로 최대 50마력까지 조합이 가능해 조합 용량 기준으로는 북미 최대 수준을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26~28일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5 AHR Expo'에 참가해 모듈형 VRF 16톤의 용량을 갖춘 'DVM S'와 스마트홈을 지원하는 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가 현지시간 26~28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HR엑스포 2015'에 참가해 시스템에어컨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LG전자 모델이 시스템에어컨을 소개하고 있다.

또 멀티브이4와 연결해 사용하는 환기제품 DOAS, 외부 기온이 높은 경우에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냉각수로 컴프레서를 식혀주는 '멀티브이 워터'도 함께 전시했다.

'멀티브이 4'와 'DOAS'는 냉난방분야와 환기분야에서 각각 '우수기술(Honorable Mentions)'로 선정됐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LED조명 인증 지원

고객사의 미주지역 인증 절차 편의성 높여

삼성전자가 자사 LED부품으로 조명을 제작하는 고객사의 미주지역 인증 취득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인증전문 기업인 인터텍(Intertek)과 27일 성수동에 위치한 인터텍 서울 사무소에서 '삼성전자 조명부품 고객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LED조명 제작 업체들은 제품 판매를 위해 각 지역별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품질·안정성·전력효율 등에 대한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27일 인터텍 서울사무소에서 글로벌 인증 전문기업 인터텍과 '삼성전자 고객 시험인증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성관 삼성전자 상무(왼쪽)와 김주용 인터텍 코리아 사장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제공

이번 협약으로 삼성전자의 LED 패키지, 모듈 등으로 LED조명을 제작하는 고객사들은 인터텍에 미주 지역 제품 인증 의뢰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비용을 절감하고 인증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그간 LED 공인인증시험소 운영을 통해 축적된 인증시험기술을 활용해 고객사에게 인증에 필요한 기술지원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임성관 삼성전자 LED사업부 품질팀 상무는 "글로벌 인증기업 인터텍과의 협약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미주 LED조명 시장에서 보다 편리한 인증 취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반으로 조명 시장에서 삼성전자 LED 부품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터텍과의 미주 조명 인증 지원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유럽·아시아 지역 주요 인증 기관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혜인기자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손 잡았다

삼성전자-한국폴리텍대학, 중·고생 대상 진로 멘토링

삼성전자와 한국폴리텍대학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한국폴리텍대학과 27일 서울 용산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고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8개 대학장, 안재근 삼성전자 수원사회봉사단장 부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와 한국폴리텍대학은 청소년 1200명에게 한국폴리텍대학 10개 학과에서 진로탐색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 임직원이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과 중, 고등학생에게 진로 멘토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3D 모델링 실습, 무선통신 안테나 특성 체험, 브랜드 로고 디자인 실습 등 관심 있는 직업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미래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해 중·고등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나눌 계획이다.

안재근 삼성전자 부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이 체계적인 진로 교육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산·학·관이 손잡고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청소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본 MOU를 통해 운영되는 기술분야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중·고교생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LG디스플레이, 美 UDC와 OLED사업 전략제휴

LG디스플레이는 미국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업체인 UDC와 기술 상호협력·특허 라이선스 협약을 맺었다고 27일 밝혔다.

1994설립된 UDC는 친환경·저소비전력이 가능한 인광 OLED 재료 원천특허를 보유한 기업. 현재 보유한 OLED 관련 특허만 3300건이 넘는다.

LG디스플레이는 UDC로부터 OLED 재료를 받고, 기술개발과 제품화 협력을 해 TV용 OLED와 플렉시블 OLED의 연구·개발·생산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와 UDC는 2007년 4인치 풀컬러 플렉서블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여상덕 LG디스플레이 OLED사업부장 여상덕 사장은 "이번 전략제휴로 OLED TV 시장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LG디스플레이의 플렉시블 및 투명 OLED 개발도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윈-윈 협력관계는 양사의 OLED사업에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LG디스플레이는 시장과 고객에게 더욱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기자

사랑에
빠진
나는
호구
입니다
2월 9일 [월]
밤 11시
tvN
첫 방송
매주
[월-화]
방송
tvN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유이 + 최우식 + 임슬옹 + 이수경 + 기획 | tvN + 제작 | MI media + 연출 | 표민수 + 박찬율 + 극본 | 윤난중

올해의 차 기아 카니발

기아자동차 카니발이 사단법인 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 최우석) 선정 '2015 한국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15)'에 올랐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 케이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신형 카니발이 현대 쏘나타, 기아 쏘렌토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소속 37개 국내 신문·방송·전문지 기자로 구성된 올해의 차 평가위원은 최근 3개월 동안 시장조사기관 프롬리서치(대표 박경림)와 함께 지난해 출시한 신차 약 40종을 대상으로 △가격대비가치 △성능 △편의 △디자인 △안전성 △연료효율을 포함한 종합평가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카니발은 74.84점으로 쏘나타(71.80점), 쏘렌토(69.47점) 등 경쟁 모델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2~3위를 차지한 쏘나타와 쏘렌토는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한 올 뉴 카니발은 기아차가 1998년 1월 처음 출시한 9~11인승 미니밴(다목적차, MPV)으로 2005년 2세대 모델을 거쳐 지난해 6월 새롭게 태어난 3세대 신모델이다. 지난 6~12월 국내에서 총 3만2397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10월엔 북미 지역에 출시해 월 2000~4000대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2015 한국 올해의 차'에 기아 카니발 선정. /사진=김종훈 기자

기아차는 이로써 중형 세단 K5가 '2011 한국 올해의 차'(1회)에 오른 이래 만 4년 만에 다시 시상대에 올랐다. 특히 미니밴이 올해의 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엔 현대 i40(중형 세단/왜건), 2013년 도요타 캠리(중형 세단), 2014년 현대 제네시스(대형 세단)가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퍼포먼스·디자인·그린카 3개 부문별 시상식에선 메르세데스-벤츠의 스포츠카 S63 AMG(퍼포먼스상)와 재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쿠페(디자인상), BMW의 전기차 i3(그린카상) 3개 차종이 수상했다. 특히 재규어 F타입은 지난해 F타입 컨버터블로 디자인상을 받은 데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김종훈기자 fun@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2가 대림창고에서 포드코리아 모델들이 '올-뉴 머스탱'을 선보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거친 야생마의 넘치는 파워 포드 '올-뉴 머스탱' 출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새로운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입한 '올-뉴 머스탱'을 27일 출시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대평원에 사는 작은 야생말에서 이름을 따온 머스탱은 1964년 출시 이래 영화, TV 화면에 숱하게 등장하며 반 세기 동안 전 세계에서 900만대 이상이 팔린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모델 가운데 하나다.

새로워진 6세대 머스탱은 V8 5.0ℓ GT 엔진과 새로 도입된 올-뉴 2.3ℓ 에코부스트 엔진을 적용해 힘과 토크는 더 강력해지고, 연비가 향상된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재희 포드코리아 대표는 이날 성수동 대림창고에서 열린 출시 행사에서 "포드가 선진 시장인 유럽보다도 앞선 1996년 한국 법인 설립과 동시에 머스탱을 한국에 선보인 것에서 알 수 있듯 머스탱과 한국은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며 "이번에 특히 GT 모델을 들여오게 돼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머스탱 GT는 V8 5.0ℓ GT 엔진이 탑재돼 최대출력 422마력, 최대토크 54.1kg·m의 힘을 발휘한다.

2.3ℓ 에코부스트 엔진이 장착된 모델은 직분사 방식과 터보 차저 등이 결합돼 최대출력 314마력, 최대토크 44.3kg·m, 복합연비는 10.1km/ℓ를 나타낸다.

가격은 2.3ℓ 에코부스트 쿠페 4535만원, 컨버터블 5115만원이다. /김종훈기자

"현명한 통신생활 즐기려면?"

스마트초이스·착한텔레콤 등 통해 정보수집 필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정보 수집이 보다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전국 유통점 중 공짜폰 구입을 위한 정보를 수집, 해당 유통점에 새벽시간에도 긴 줄을 서가며 휴대전화 대란을 야기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부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공시하면서 이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애플 '아이폰6'가 출시된 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리점에선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새벽까지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신경써야 하는 점은 자신의 통화 패턴을 통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어느 이동사가 해당 요금제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단말기를 가장 싸게 제공하는지, 할인혜택, 멤버십 혜택 등 서비스가 유리한지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결국 여전히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야 더 알뜰한 통신생활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현명한 통신 생활을 즐기기 위해 보다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할 곳은 없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사이트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이통 3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단말기별 이통 3사 간 가격비교가 용이해 휴대전화 단말기나 이통사 변경시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공시를 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통점을 방문해 왜 어제랑 오늘이랑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다르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소비자들은 이통사별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한 꼼꼼히 요금제별 지원금을 들여다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알뜰한 통신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SKT-인텔,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맞손

SK텔레콤이 반도체 칩 제조사인 인텔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와 신규 상품·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CTO)과 이희성 인텔코리아 대표는 이날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MOU를 채결한 뒤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oT 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국내외 업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IoT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주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양사는 네트워크와 사물이 결합된 상품·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 IoT 업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왼쪽서 다섯 번째)과 이희성 인텔코리아 대표(왼쪽서 네 번째)가 27일 오전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아울러 공동 개발된 서비스 체험을 위한 실증사이트 구축과 개발 사례 축적을 통해 IoT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협의했다.

SK텔레콤은 2012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IoT 서버 플랫폼'을 기반으로 칩셋·단말기·네트워크 등 IoT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여왔다.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은 "IoT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역량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한 기술 리더십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력이 SK텔레콤의 IoT 기술수준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SK하이닉스, '주니어 셀프리더십 스쿨' 개최

임직원 자녀에 리더십 개발 교육 지원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가 임직원 자녀들의 뜻 깊은 겨울방학을 위해 리더십 개발 교육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2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이천·청주캠퍼스 인력개발원에서 '주니어 셀프리더십 스쿨'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 겨울 방학에 처음 도입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대상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240여명의 임직원 자녀들은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학교생활 목표 세우기 등 자기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CEO 집무실에서 '일일 CEO 체험'을 진행하는 등 임직원 자녀들이 준비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기회를 적극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29일과 다음달 8일에는 임직원과 가족 480여 명이 함께 농구경기 단체 응원에 나서는 '가족 덩크슛 데이'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의 소속감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대상그룹 명예회장>

‘포스트 임창욱’은 차녀 상민 가닥?

임세령, 레스토랑 사업 지지부진…동생보다 지분도 ‘절반’ 수준

임세령 대상그룹 상무(39)가 배우 이정재씨와 연인관계라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상그룹 후계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은 조미료 미원을 생산하는 종합식품기업이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슬하에 임세령 대상식품사업총괄 상무와 임상민 대상홀딩스 상무(36) 등 두 딸만 두고 있다.

특히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본격적인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자매간의 경영권 승계 경쟁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 임세령 상무의 그룹 내 입지와 사업 능력은 시험대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는 차녀인 임상민 상무가 대상그룹 내 유력한 승계 후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2001년 두 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장녀인 임세령보다 차녀인 임상민에게 200만주를 더 물려줬다. 당시 임세령 상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결혼한 상태였다. 이후 2009년 임세령 상무가 이 부회장과 이혼하고 일선에 복귀했지만, 임 명예회장 부부는 대상홀딩스 지분 6.73%를 임상민 상무에게 양도하는 등 차녀에게 힘을 실어줬다.

실제로 지분만 놓고 봐서도 임상민 상무가 임세령 상무보다 우위에 있다. 현재 대상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임상민 상무(36.71%)로 임세령 상무(20.41%)와의 후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

더욱이 2013년 인사에서 임상민 상무는 전략기획본부 상무로 승진하면서 후계구도는 점점 동생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임세령, 사업 관련 특별한 성과 못내

왼쪽부터 대상그룹 임세령, 임상민 상무.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지분은 그렇다 치고 향후 경영 실적에 따라 임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을 나눠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임세령 상무는 경영에 있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 수완 역시 ‘물음표’다.

199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결혼한 임세령 상무는 2009년 이혼 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0년 ‘터치 오브 스파이스’라는 아시아 퓨전 레스토랑을 열었는데, 옥상 부지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부터 잡음을 냈다. 결국 매장을 폐점하는 등 사업을 접고 말았다.

이후 2013년 청담동에 ‘메종 드 라 카테고리’라는 레스토랑을 열었지만 이 역시 뚜렷한 경영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임상민 상무는 이화여대 사학과·미국 파슨스 스쿨·런던비즈니스스쿨을 졸업하고 대상 PI본부 차장, 전략기획팀 차장,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치며 경영수업을 착실하게 받아왔다. 때문에 재계는 임상민 상무가 경영 후계자로 낙점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대상그룹은 임창욱 명예회장이 199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지분 차이가 15%가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임상민 상무가 후계 승계의 유지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면서 “업계도 ‘포스트 임창욱’으로 차녀인 임상민 상무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외식업계 ‘저가 커피’ 전쟁중

맥도날드 1000원대 출시…파리바게뜨, 이디야보다 300원 저렴

외식업계가 ‘커피 가격 전쟁’ 중이다.

맥도날드·파리바게뜨 등은 고급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내놓으며 ‘밥값보다 비싼’ 커피 전문점 커피에 도전장을 냈다.

비싼 커피가 좋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커피를 선보이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29일부터 자사 커피 브랜드 ‘맥카페’ 커피 가격을 최대 600원 인하한다.

미디움 기준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각각 2900원에서 2300원으로, 아메리카노는 23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이와 함께 ‘스몰’ 사이즈 메뉴를 새롭게 출시하며 가격을 1000원대로 끌어내렸다. 스몰 음료 가격은 아메리카노가 1500원, 카페라떼와 카푸치노가 1800원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와 비교해 가장 싼 가운데 가장 싼 이디야(28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

다”며 “앞으로 전국 300여 개 매장에서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카페 아다지오’를 출시하며 커피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아메리카노 2500원·카페라떼와 카페모카 3500원이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커피 전문점 브랜드 가운데 가장 싼 이디야(2800원)보다 300원 저렴하다.

카페 아다지오는 파리바게뜨 커피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찾아낸 고품질 원두를 사용하고, 원두 농장과 직거래시스템을 통해 합리적 가격도 갖췄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맛과 품질뿐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외 커피 시장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전국 3200여 매장을 보유한 저력을 바탕으로 커피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커피업계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저가 커피 공세에 관련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저가 커피의 품질과 가격, 마케팅 상황 등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박지원기자

스타벅스, 숏 사이즈 가격표시 안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현행 식품위생법을 어기고 메뉴판에 가장 작은(숏) 사이즈 음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벅스는 한국과 달리 미국(뉴욕)과 일본(후쿠오카) 매장에서는 숏을 포함한 네 가지 종류를 모두 제대로 표기하고 있다.

27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매장의 커피 등 음료는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네 가지다. 가격과 용량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숏 237㎖ 3600원 ▲톨 335㎖ 4100원 ▲그란데 473㎖ 4600원 ▲벤티 591㎖ 5100원 등이다.

하지만 스타벅스 매장의 메뉴판에는 숏 사이즈 표기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톨(tall) 사이즈를 가장 작은 종류로 생각하고 주문하는 실정이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톨 사이즈 음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스타벅스의 판매 행위는 지난 수 년동안 지속됐고 소비자들의 지적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스타벅스의 ‘사이즈 표기 누락’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가운데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영업장 면적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은 영업소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고발했다.

/박지원기자

오설록 티하우스 청계천점 개장

차(茶) 브랜드 오설록이 차 문화 체험공간인 ‘오설록 티하우스’ 청계천점(사진)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에 위치한 오설록 티하우스 청계천점은 홍대점·삼청동점·강남역점·가로수길 점 등에 이은 18번 째 매장이다.

매장 앞에는 청계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 좌석을 마련했다. 내부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배치했다.

청계천점은 오픈 기념으로 할인과 증정품 등 다양한 혜택이 담긴 ‘티하우스 청계천점 쿠폰집’ 2만 부를 구매 고객에게 증정한다.

롯데주류 ‘반피 로사리갈’ 미니 와인 출시

롯데주류는 ‘반피 로사리갈’ 미니 와인(사진)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750㎖ 제품과 원액은 같고 용량만 기존의 4분의 1 크기인 187㎖로 줄여 혼자 마시기에 적당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피 로사리갈은 장미향과 달콤한 과실 향이 나는 이탈리아산 레드 스파클링 와인으로 포도 ‘브라케토 다퀴’ 품종으로 만들었다.

롯데주류는 ‘반피 로사리갈 미니’ 1병과 장미로 구성된 밸런타인데이 패키지도 다음 달 2일부터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반피 로사리갈 미니는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2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며, 밸런타인데이 패키지는 약 20% 할인된 1만6000원에 살 수 있다.

정부 칼날에 떨고 있는 홈쇼핑업계

갑질 관행 뿌리 뽑기 위해 '과락제' 도입…실효성 '글쎄'

정부의 칼날이 홈쇼핑업계로 향하고 있다. 갑(甲)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퇴출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에 따라 홈쇼핑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눈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홈쇼핑업체의 갑질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 위해 최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수정했다. 갑질 관행이 행해지는 해당 홈쇼핑 업체에 대해 한번에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시켰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범죄행위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배점의 50% 미만일 경우 총점이 기준을 충족해도 재승인을 받지 못한다.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두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2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 심사를 진행하고 4~5월쯤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모두 3곳이다. 특히 이 중 '롯데홈쇼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지난해 납품비리와 갑질 행위로 도마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납품비리로 얼룩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된다면 이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다.

하지만 업계에선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홈쇼핑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미래부의 과락제 도입 발표 이후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퇴출시키는 건 힘들 것"이라며 "다만 승인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부과금 징수하는 등의 대안이 나올 것 같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락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강화의 일환으로 과락제가 도입은 사실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해 심사를 받는 홈쇼핑 업체는 3곳이지만 모든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진다. 당장 홈쇼핑 업체를 탈락시킨다면 수많은 직원과 납품업체가 줄줄이 문 닫는 등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홈쇼핑 업체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롯데홈쇼핑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현대홈쇼핑은 '그린다큐 공모전' 지원금을 지난해보다 20~30% 늘리고 있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홈플러스 봄옷 신상품 300여종 판매 홈플러스는 '플로렌스&프레드' 봄 의류 신상품 300여 가지를 29일부터 판매한다. 새 상품 가운데 남성 의류는 데님 스타일을 강화해 세미 정장에도 코디할 수 있도록 블랙·화이트 데님(3만9000원)을 처음 선보인다. 여성 의류는 엉덩이 부분에 절개선을 더한 데님과 컬러스트레치 레깅스(1만5900원), 노랑·분홍·파랑·빨강 등 다양한 색으로 화사함을 더할 바람막이 점퍼(1만5900원) 등이 출시된다. /홈플러스 제공

롯데, 동반성장펀드 6000억 규모 확대

롯데그룹이 약 8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동반성장펀드를 약 6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롯데그룹은 동반성장위원회과 2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중소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과 공유가치 창출을 선언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김종국 동반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롯데그룹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 협력회사와 상생활동을 통한 공유가치 창출 ▲거래관계개선을 통한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약 8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동반성장펀드를 약 6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100% 현금결제·대금 지급기일 단축 등 자금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협력사의 동반성장 체감도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의 직접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교육도 강화한다.

중소 협력회사와의 해외 동반진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백화점, 마트, 홈쇼핑 등 해외 진출 유통사와 함께 한국 중소기업 전용 매장과 중소기업상품 특별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 물류시스템 지원, 통관 및 시장정보 제공 등 중소 협력회사들이 해외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룹 내 다양한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 협력회사에게 사업기회를 개방하기 위해 롯데리아에 공급하는 햄버거빵을 중소기업이 공급하도록 전환한다. 두부·막걸리·선운산 복분자주· 무안 양파햄·의성 마늘햄 등은 지역농가와 연계해 신상품을 개발하고 판로 개척·수출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과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롯데그룹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중소 협력사에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유통가 PB상품 '거침없는 성장'

'저렴하다' 인식 깨고 효자 상품 등극…구색 다양화

불황의 그늘 속 유통업계가 PB(Private Brand, 자체생산 브랜드) 상품 덕에 재미를 보고 있다. 과거 'PB상품은 저렴하다'는 인식을 넘어 유통업계 주요 매출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다.

27일 롯데마트가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통큰 홍삼정·비타민·오메가·유산균 등 'PB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최소 24.1%, 많게는 901.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신장률과 비교해도 최대 3배(277.0%) 이상 높은 것으로 PB 건강식품의 출시가 해당 카테고리 전체를 신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개발 단계부터 원산지, 성분 등 상품 품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것이 PB건강기능식품의 성공 요인"이라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강식품을 개발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업계도 PB상품 매출이 점차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 따르면 PB상품의 매출 신장률은 2013년 7.6%에서 지난해 9.1%로 성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알뜰소비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반 상품 대비 저렴하고 실속 있는 편의점 PB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CU(씨유)는 올해 중점 카테고리에서 기존의 히트 PB 상품의 버전을 다양화하는 시리즈 개발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PB 상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구색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집객 효과, 상품 차별화, 높은 마진율 때문에 PB상품을 늘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김보라기자

통큰 건강선물세트 /롯데마트 제공

"정육선물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강강술래 으뜸 설 명절세트 최대 55%↓… 내달 3일까지 구매시 추가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정육세트를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판매한다.

2만원대 가공식품부터 30만원대 한우명품 세트까지 약 40여종의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여 선택 폭을 넓혔다. 내달 3일까지 사전 예약판매기간 동안 주문하면 추가 할인혜택을 통해 최대 55%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매장 인기품목인 한우불고기1호(1.5kg)는 5만4000원, 한우불고기2호(2.25kg) 7만2000원, 술래양념1호(16대) 9만원, 술래양념2호(24대)는 12만6000원에 판매한다.

술래실속2호(술래양념8대+한우불고기1.5kg)는 9만원,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5kg)는 12만6000원, 한우찜갈비세트1호(2.4kg·냉동)는 17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고 구수하며 상온보관이 가능한 한우사골곰탕 대용량세트(800ml·5팩·15인분)는 3만4900원, 중용량세트(500ml·7팩·14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영광 법성포에서 자연해풍에 3개월 이상 건조해 만든 국내산 보리굴비세트(10마리)는 9만9000원,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세트(12봉)는 4만6400원에 선보인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 통등심돈가스(720g·2박스)와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2박스)로 구성된 세트는 40% 할인된 3만7200원, 한우양념불고기(500g·2팩)와 한돈양념구이(500g)로 구성된 나라사랑세트는 약 43% 할인된 4만3000원에 판매한다.

/박지원기자 pjw@

출국수속 이젠 서울역에서 하세요

다가오는 설날연휴는 휴가를 이용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이에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을 포함한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붐빌 것으로 전망돼 해외여행 성수기에 준하는 공항 이동과 출국수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여름휴가철에 인천공항은 주차장이 만원을 이루고 항공사 탑승수속과 출국심사, 그리고 보안검사 등으로 출국수속에 최소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특히 설날연휴는 중국의 춘절연휴(2월 18~24일) 시기와 비슷해 중국 관광객들의 방한과 출국이 겹치면 출국수속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때는 코레일공항철도가 마련한 인천공항철도 서울역의 도심공항터미널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도심공항터미널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이 입주하고 있어 탑승수속과 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출국심사를 해주고 있어 10분 정도면 출국수속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코레일공항철도 제공

설연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하면 시간 단축 직통열차 타면 인천공항까지 43분만에 도착

아울러 이곳에서는 출국수속을 마친 후 인천공항까지 43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직통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직통열차 운임은 편도 기준 8000원이나 위 세 항공사 탑승권 소지자의 경우는 6900원으로 할인되며 4명 이상 이용 시에는 세 항공사 탑승권이 없어도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더욱이 도심공항터미널 입구에 있는 우리은행 환전소는 국내에서 환전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출국 전 환전장소로 적당하다. 게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는 외교관이나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구를 통해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

지방 거주자는 KTX가 인천공항까지 곧바로 운행되지만 편수가 적은 만큼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철도로 갈아타는 것도 여행을 현명하게 즐기는 한 방법이다.

코레일공항철도 관계자는 "실제로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 공지영 작가는 도심공항터미널을 처음 이용한 후 '이렇게 편리한 곳이 있는 줄 몰랐다'며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배우 유지태도 도심공항터미널 운영 초기부터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심공항터미널의 편의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철도는 직통열차 외에 서울역~인천공항역 간 11개 역을 모두 정차하는 일반열차도 운행한다. 또 직통열차는 KTX처럼 개인 좌석제며 일반열차는 수도권 전철과 같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아내 위한 특별한 설날 선물!

신라스테이, '아내사랑 패키지' 선봬

신라스테이(www.shillastay.com)가 설연휴를 맞아 다음 달 16일부터 22일까지 수고한 아내를 위한 '아내사랑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고급 침구가 마련된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신라호텔의 맛을 담아 '프티 파크뷰'로 불리는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의 조식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CGV 영화 티켓 2매와 '아쿠어 테라피 바디 쏠트' 등 총 4종으로 이뤄진 아베다(AVEDA) 기프트 세트도 제공돼 다양한 놀거리는 물론 아쿠아 테라피와 함께 안락한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명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패키지 이용기간 카페에서는 셰프가 준비한 떡국을 맛볼 수 있다. 떡국은 한우 사골을 오랜 시간 우려내 깊은 맛을 자랑하며 신선한 샐러드와 갓 구워낸 크루아상, 오믈렛을 비롯한 달걀요리 등은 신라호텔 그대로의 맛을 자랑한다. 아울러 디저트로는 고급 수제한과가 준비돼 명절의 정취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 역삼에서 패키지를 이용하는 선착순 100명에게는 디럭스 객실로의 업그레이드 혜택이 주어진다. 신라스테이 동탄에서는 욕조 객실을 이용한 스파를 즐기며 레이트 체크아웃(Late check-out)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패키지 가격(세금 별도)은 역삼 17만9000원, 동탄 14만9000원이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스마터 스테이(Smarter Stay)'를 콘셉트로 신라호텔의 상품과 서비스 가치 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 비지니스호텔이다. 문의: 02)2230-3000

/황재용기자

쉐라톤 인천 호텔, 다양한 이벤트 준비

쉐라톤 인천 호텔이 더 달콤한 밸런타인데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러브 홀릭 패키지'는 송도 센트럴 파크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쉐라톤 인천 클럽 룸에서의 1박과 부티끄 로비 바 비플랫(Bb)에서 오직 두 사람을 위한 로맨틱 스페셜 메뉴를 제공한다. 로맨틱 스페셜 메뉴는 리알토 모스카토 스파클링 와인 2잔과 스페셜 카나페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비플랫에서는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스윗 나잇 엣 비플랫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다. 프로모션은 제철을 맞이한 딸기가 가득한 스페셜 플레이트와 와인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네는 이탈리아 특별 코스 메뉴를 선보인다. 쉐라톤 시그니처 레스토랑 피스트는 밸런타인데이 당일인 14일 단 하루 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32)835-1004 /황재용기자

게임업체도 '일하기 좋은 기업' 될 수 있다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㉘

신뢰 최우선 경영진 최우수 책상·의자 임직원 모두 동일

블루홀스튜디오

사내 휴게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블루홀 직원들 /손진영기자

블루홀의 자랑 '화채 데이'

회사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타운홀 미팅

MMORPG '테라'로 유명한 게임업체 블루홀스튜디오는 지난해 연말 큰 상을 받았다. 기업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이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경영진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것만이 아니다. 일과 삶의 균형, 급여·복지에서도 고른 점수를 획득해 종합점수는 중소기업 부문 무려 4위다. 야근 많기로 '악명(?)'높은 게임업계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다.

그러나 정작 블루홀에서는 이번 수상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경영진은 물론 직원들도 '받을만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블루홀 직원들의 이같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직원 불만, 경영진이 일일이 답해

무엇보다 회사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는 수평적인 사내문화가 가장 먼저 꼽힌다. 직원들에게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경영진이 꼭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2007년 회사를 처음 설립하면서 경영진이 내세웠던 '모든 직원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사장실 등 임원실이 따로 없는 것은 물론 책상·의자도 모두 동일하다. 사내 규정도 최소한의 것 이외에는 직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경영실적 등 회사의 모든 것은 분기에 한차례 열리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공유한다. 직원들이 인트라넷에 질문을 올리면 경영진이 일일이 답변을 해준다. 예를들어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오자 서둘러 인근 식당과 계약하기도 했다.

이같은 소통문화에 직원들은 잡플래닛에 '투명한 조직 구조 속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올리며 화답하고 있다.

◆사무공간 대신 화장실 투자 눈길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세심한 배려도 자랑거리다. 안식휴가·단체보험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을 위한 화장실 확충에 많은 비용을 들였다. 근무·회의 공간을 넓히기 보다는 오랜 시간 책상에서 근무해야 하는 직원들의 장 건강을 챙기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블루홀은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5년 이상 장기근속이 270여명인 전체직원의 20%에 달한다. 창업 멤버중 절반이상이 8년째 블루홀을 꿋꿋이 지키고 있다. 특히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났다가 블루홀의 기업문화가 그리워 다시 돌아온 재입사자도 20여명이나 된다.

◆수시·공채로 100여명 채용 예정

경영성과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테라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미국·유럽·대만·중국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매출 448억원, 영업이익 131억원을 올린 매출구조는 지난해 더욱 안정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블루홀은 테라의 외전격인 '엘린원정대' 등 10여개의 모바일게임을 준비 중이다. 테라급의 MMORPG인 '프로젝트W'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 수시·공채로 100여명의 사원을 채용한 블루홀은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인원을 뽑을 예정이다.

임재연 피플팀 팀장은 "블루홀의 강점은 서로 신뢰하고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라며 "게임업계에 혁명을 일으킬 많은 인재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이색 지원자도 환영합니다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3년 동안 일했던 과장급 직원이 2012년 신입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펙만 높지 게임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서 불합격 시켰죠. 그런데 피플팀에 직접 찾아올 정도로 열정을 보여 게임 기획직으로 뽑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재연(사진) 피플팀 팀장은 블루홀에는 이처럼 이색 지원자가 많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다른 사례도 있나.

▶▶국내 1위의 게임업체에 지원했다 탈락한 후 '해당 업체를 후회하게 만들겠다'며 블루홀에 입사한 직원도 있다. 이같은 오기 때문인지 실력은 물론 의욕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이처럼 블루홀에는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직원들이 많다.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실무팀 면접, 최종면접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래머 등은 해당 직무에 관련된 필기시험(Pre-Test)도 치른다. 각 단계별로 직무관련 역량, 협업 능력, 목표의식 등을 꼼꼼히 살핀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입사 전 블루홀이 정말 일하고 싶은 직장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길 권한다. 블루홀과 함께 하고픈 의지, 열정, 간절함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다만 입사를 위해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면 면접관들도 눈치 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 데이'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스마트학생복과 이지웰가족복지재단이 마련한 '가족 사랑의 날' 거리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족 사랑의 내용이 담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겨울은 사표의 계절

직장인 40% 연말연시 퇴사

쌀쌀한 겨울은 직장인의 근속 의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연말연시가 사표 제출이 가장 많은 계절로 꼽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31개사를 대상으로 '퇴사율이 가장 높은 달'을 최근 설문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겨울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사표를 제출하는 시기는 '12월'이 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월'(15.7%), '2월'(10.6%), '1월'(10.3%) 순이었다. 직장인의 39.9%는 한겨울인 12월~2월에 사표를 내는 셈이다.

퇴사율은 '여성'(23.6%)보다는 '남성'(57.5%)이, '기혼자'(19.5%)보다는 '미혼자'(60.7%)가 더 높았다. 퇴사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차로는 '1년차 이하 신입'이 5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2년차'(21.1%), '3년차'(15%), '5년차'(3.2%), '4년차'(2.9%) 순으로 5년 미만 직원들의 사표 제출이 잦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금융·건설 늘고 정유·화학 줄고

대기업 채용규모 2.3%↓

대기업 신입자리가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2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30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51개사(49.5%)에 불과했다.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로 나타났다. 아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은 전체의 41%인 125개사에 달했다.

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 채용 인원(129.9명) 보다 2.3% 줄었다. 전체 신규채용 인원 규모도 지난해 2만3385명에서 올해 2만2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채용예정인원 (채용여부 확정 180개사)

업 종	채용여부 확정기업	2014년		2015년		증감률
		전체	1사당	전체	1사당	
금융	27개사	1709명	63.3명	1830명	67.8명	7.10%
건설	15개사	2136명	142.4명	2270명	151.3명	6.30%
유통물류	33개사	2068명	62.7명	2111명	64.0명	2.10%
기계금속조선	13개사	5276명	405.8명	5315명	408.8명	0.70%
정보통신	8개사	1078명	134.8명	1063명	132.9명	-1.40%
방송출판기타	4개사	160명	40.0명	155명	38.8명	-3.10%
섬유제지잡화	15개사	550명	36.7명	519명	34.6명	-5.60%
자동차 및 부품	9개사	1253명	139.2명	1172명	130.2명	-6.50%
전기전자	15개사	7363명	490.9명	6851명	456.7명	-7.00%
식음료	15개사	679명	45.3명	592명	39.5명	-12.80%
정유화학	26개사	1113명	42.8명	966명	37.2명	-13.20%
계	180개사	2만3385명	129.9명	2만2844명	126.9명	-2.30%

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13.2%)과 식음료(-12.8%)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30대 대기업 중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78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31~100위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세운 28개사도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77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01~200위 대기업 중 42개사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2013명을, 201~300위 대기업 중 31개사는 8.4% 증가한 20471명을 뽑을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국명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사랑이 뭐냐고요? 끌림이 전부는 아니죠"

'오늘의 연애'로 첫 영화 도전한 이승기 ▼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어디 있을까. 사귀는 여자친구와는 좀처럼 진도도 나가지 못한 채 차이기 일쑤고, 18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온 여자에게는 마음을 표현할 줄 모르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승기(28)가 그런 남자를 연기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그의 선한 이미지 때문이다.

이승기가 지닌 가장 대중적인 이미지는 역시 '허당'이다. 한 구석이 빈 듯한 편안함은 이승기의 트레이드마크다. 데뷔 10년 만에 만난 첫 영화 '오늘의 연애'에서 착한 남자 준수를 연기하게 된 것은 어찌보면 필연에 가깝다.

시나리오로 먼저 만난 준수는 완성된 영화보다 더 단조롭고 무난한 캐릭터였다. "준수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영화라 관객과의 공감이 중요했어요. 특징도 많지 않은 무난한 캐릭터지만 어떻게 관객이 준수와 함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유머러스함을 많이 넣었죠."

처음부터 준수에게 공감이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썸'이 트렌드로 자리잡은 요즘 세상에 준수처럼 진득하게 사랑을 고민하는 인물도 한 명쯤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캐릭터에 다가갔다. 그건 이승기 본인이 지향하는 연애 스타일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연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극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의 반대도 아랑곳하지 않게 만드는 열정적인 사랑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꼭 그런 것만 사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 사이의 '끌림'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로 그 사랑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승기가 지금처럼 편안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예능 프로그램 '1박2일'로 얻은 '허당' 캐릭터 때문이다. 그러나 학창 시절 늘 전교회장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허당'의 모습 또한 하나의 캐릭터라는 생각이 든다. 이승기는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다른 것 같다. 학창 시절에는 고집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원래부터 빈 구석이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며 웃음을 보였다.

착한 이미지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미지가 배우의 영역에서는 역할의 폭을 제한하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이승기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변신을 위한 변신보다는 자연스러운 변신을 추구한다.

"'더킹 투하츠' '구가의 서'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나름대로 변신을 위해 선택한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것만큼 대중이 그 변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지금은 이미지를 억지로 벗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에게서 지금과는 다른 이미지를 원할 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스캔들과 해프닝이 끊이지 않는 연예계에서 이승기는 유독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그는 "소속사의 통제를 조금 더 잘 따랐을 뿐"이라며 "연예인은 무조건 컨트롤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사고가 없었던 만큼 늘 긴장해야 해서 힘들어요(웃음). 하지만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기는 지났죠. 지금은 그저 이 일을 업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허당' 이승기도 일에서만큼은 완벽했다.

"3월에는 감성 팝 발라드의 노래로 가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화도 이제 첫 출발을 끊은 만큼 드라마에서 못 해본 역할을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이승기를 아주 잘 뽑아 먹을 수 있는 감독님을 만나길 바랍니다(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디자인/최송이

'썸'보다 진득한 사랑 고민하는 착한남
"이미지 탈출?… 자연스러운 변화 추구"

star bag

'호구의 사랑' 카메오 등장

배우 **이성민**이 tvN 새 월화드라마 '호구의 사랑' 첫 회에 깜짝 등장한다. 이성민은 주인공 최우식(강호구 역)이 일하는 만화 대여점의 손님으로 출연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성민은 '미생'에서 장그래에게 말했던 '날 흘려봐' 대사를 강호구에게도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달 9일 오후 11시 첫 방송.

출연작 모은 기획전 마련

배우 **변요한**의 출연작을 모은 기획전 '변요한전(展)'이 다음달 3~24일(매주 화요일 오후 8시) KT&G 상상마당에서 열린다. 변요한은 지난해 tvN 인기드라마 '미생'을 통해 뜬 라이징 스타로, 데뷔작 '토요근무'를 비롯해 '재난영화' '매직아워' '목격자의 밤' 등 4편의 단편 영화와 첫 장편 주연작 '들개'를 재상영한다.

은밀한 총각 노하우 전수

개그맨 **신동엽**이 MBC 에브리원의 새 리얼 버라이어티 '신동엽과 총각파티'를 슈퍼주니어 강인·은혁과 함께 이끌게 됐다. '신동엽과 총각파티'는 대한민국 총각들이 해보고 싶었지만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던 일을 연예인들이 대신 경험해 보는 리얼리티 쇼다. 다음달 12일 오후 9시 첫 방송.

불가리 여성 시계 뮤즈 발탁

배우 **김효진**이 이탈리아 브랜드 불가리(BVLGARI)의 여성용 시계 루체아의 뮤즈가 됐다. 김효진은 최근 불가리의 루체아 프로모션 영상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다. 불가리의 오랜 역사와 걸맞은 기품있고 찬란한 아티스트들 중 한 명으로 선정돼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내 심장을 쏴라’ 제작 무려 6년

2009년부터 각색 등 정성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내 심장을 쏴라’ 제작을 위해 6년의 긴 시간을 투자한 사연을 공개했다.

‘내 심장을 쏴라’는 수리정신병원을 배경으로 평온한 병원생활을 이어가던 모범환자 수명(여진구)이 시한폭탄 같은 동갑내기 친구 승민(이민기)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주피터필름은 ‘관상’보다 앞선 2009년부터 ‘내 심장을 쏴라’의 제작을 준비했다. 정유정 작가의 동명 소설이 출간됐을 때 두 주인공 승민과 수명으로 대변되는 두 청춘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판권을 구매했고 약 6년의 시간을 거쳐 각색과 제작 과정을 거쳤다.

제작사가 일생에 걸쳐 꼭 만들고 싶었던 영화인만큼 남다른 의의와 완성도를 갖춘 ‘내 심장을 쏴라’는 베스트셀러 작품 원작의 탄탄한 스토리, 이민기와 여진구의 케미스트리, 청춘을 위로하는 가슴 벅찬 메시지로 관객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 심장을 쏴라’는 28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

SBS-MBC ★ 궁합 있다는데

현빈·장혁·오연서… 전작보다 미지근한 반응

“배우와 방송사 간에도 궁합이 있다”는 업계의 말이 있다.

배우 현빈·장혁·오연서는 SBS·MBC 드라마와 재회했다. 그러나 전작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부족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평가다.

현빈과 SBS의 인연이 눈에 띈다. 수목극 ‘하이드 지킬, 나’로 전역 후 처음 안방에 컴백했다.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은 SBS ‘시크릿가든’(2010)이다. 까칠함과 부드러움이 어우러진 재벌2세 김주원으로 분해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이라는 대사를 유행시켰다. ‘하이드 지킬, 나’에선 1인 2역에 도전했다. 까칠남 지킬 구서진과 순정남 하이드 로빈으로 상반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극 전개 속도가 현빈의 이중 매력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중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의 과거를 미스터리물로 꾸미려는 연출력이 몰입도를 떨어트린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28일 3회부터 로빈의 비중이 많아지고 구서진의 애잔한 면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장혁·오연서는 MBC 흥행을 재현할 배우로 주목 받았다. 두 사람은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 ‘왔다! 장보리’(2014) 인기의 주역이다. 연말 시상식에서 미니시리즈·연속극 부문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월화극 ‘빛나거나 미치거나’에서 티격태격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운명처럼 장보리’라는 비판이 있다. 장혁·오연서의 연기가 전작과 구분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개성 강한 캐릭터가 후속 작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이드 지킬, 나’ ‘빛나거나 미치거나’는 시청률 8~9%대로 동시간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극 초반이라 향후 전개에 따라 반등 기회는 열려 있다. 현빈·장혁·오연서가 SBS·MBC와의 ‘좋은 궁합’을 증명할지 주목된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현빈 장혁·오연서

‘해녀’ 이태임, 이재훈 과외 선생님

배우 이태임(사진)이 가수 이재훈의 ‘바다’ 선생님으로 변신한다.

이태임·이재훈은 김성령·성시경, 정재형·송가연 커플과 함께 MBC 예능프로그램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한다.

두 사람은 제주도 문화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해녀가 되기 위해 공부한다.

특히 이태임은 수영 실력을 바탕으로 이재훈에게 ‘해남 되는 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울산이 고향인 이태임은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놀이터 삼아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논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훈은 연예계 대표 레저스포츠 마니아다.

운동에 일가견이 있는 있는 두 사람의 건강미가 보는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임·이재훈이 합류한 ‘띠동갑내기 과외 하기’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된다. /전효진기자

김대희 ‘김준호 아이들’ 책임진다

코코 엔터 소속 개그맨 모아 제이디브로스 설립

개그맨 김대희(사진)가 코코엔터테인먼트를 나온 후배들과 새 소속사를 차린다.

김대희는 지난해 코코 엔터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 김준현·김지민·이국주·조윤호 등 개그맨 40여 명과 함께 제이디브로스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힘든 시기 불평 없이 기다려준 후배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연기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준호의 자리는 항상 비워두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마무리 돼 우리와 함께 하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대희는 후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개그맨들의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자비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코코 엔터는 지난해 김우종 공동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해 경영난을 겪었고 지난 24일 공식 폐업을 선언했다. 폐업 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코코 엔터 창업 투자 주주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코 엔터는 김우종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인 회사다. 김씨에게 책임을 묻는 일과 별개로 주주들과 회사의 임직원들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생의 가능성을 찾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며 회사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김지민기자 langkim@

온라인 핫 이슈

강소라 셀카 공개… 민낯에도 청순 미모

지난해 드라마 ‘미생’으로 인기를 모은 배우 강소라(사진)가 셀카 사진으로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26일 강소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귀여운 아가 팬이 만들어준 루피망고”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강소라는 한 팬이 만들어준 루피망고 모자를 쓰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화장기 없는 얼굴임에도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강소라는 드라마 ‘미생’에서 안영이 역할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각종 CF 모델로 발탁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병호기자

기자들만 아는
숨겨진 속 **이야기!**

같이 볼래?

용감한 NEWS

충격!

[밀착취재] 신동엽 알고보니, '헐'!

궁금하면!

특별기자회견 용감한 기자들

매주 **수요일 밤 11시** E채널

신동엽 | 홍석천 | 김태현 | 김정민 | 레이디제인

이 프로그램은 아임티캐스트 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www.imtcast.com

슈틸리케호 결승까지 일정 '판타스틱'

31일 결승전 5일 휴식 '느긋'… 애초 호주의 시나리오

한국 축구대표팀이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이라크를 2-0으로 제압한 뒤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연합뉴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5 호주 아시안컵 축구 대회에서 환상의 토너먼트 일정으로 결승전까지 향했다. 이는 애초 주최국인 호주가 우승을 위해 기획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다.

지난 26일 시드니에서 열린 한국과 이라크의 준결승이 끝난 뒤 라디 셰나이실 이라크 감독은 불만을 제기했다. 이라크는 23일 8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다. 그러고 나서 3일 동안 허겁지겁 회복만 한 뒤 8강전을 치러 하루를 더 휴식한 한국과 맞붙었다.

반면 한국은 17일 호주와 A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5일을 쉬고 22일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치렀다. 이어 4일을 쉬고 26일 이라크전을 벌였다. 결승전 역시 5일 뒤인 31일 펼쳐진다.

현재 한국이 즐기는 이 대진은 원래 호주가 우승을 위해 만든 홈 이점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호주가 개최국으로서 수월하게 결승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뒀다"며 "우리가 호주가 짜낸 유리한 일정을 호주와 맞붙어 우리의 것으로 빼앗아 왔다"고 말했다.

호주는 조별리그에서 개막전(A조 1차전)을 하루 먼저 치른 뒤 같은 날에 A조 2차전에 들어가 하루를 더 쉬는 이점을 누렸다. 가뿐하게 2연승을 거둔 뒤 한국과의 3차전을 준비했다. A조에서 1위로 8강에 진출하면 준결승전도 하루 먼저 치를 수 있었다. 이런 우승 시나리오는 한국을 꺾으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호주는 A조 3차전에서 한국에 발목이 잡혀 조 2위로 준결승전을 하루 더 늦게 치르는 험한 길을 걷게 됐다. 슈틸리케호가 호주와의 3차전을 앞두고 이미 8강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총력전을 펼친 까닭은 이런 일정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를 2-0으로 제압한 슈틸리케 감독은 27일 선수단에 전면 휴식을 지시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블론세이브 줄이고 구속 높인다"

오승환, 괌 개인훈련 마치고 일본행

'한신 수호신' 오승환(33·사진)이 긴 개인 훈련과 짧은 휴식을 마치고, 팀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오승환은 27일 오전 검게 그을린 얼굴과 더 탄탄해진 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 오사카로 떠났다. 지난해 12월 27일 괌에서 전 동료 삼성 라이온즈 선수, 한신 후배 투수와 함께 개인훈련을 한 오승환은 25일 귀국해 비자 등을 해결한 후 이날 출국했다.

오승환은 29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2월 1일 오키나와 기노자에서 시작하는 한신 스프링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다.

일본 진출 첫해인 2014년 2승 4패 39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을 기록하며 선동열 전 감독이 1997년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기록한 38세이브를 넘어선 오승환은 한국인 최초로 일본 무대 구원왕에 등극하는 새 역사를 썼다.

클라이맥스시리즈 6경기에 모두 등판해 시리즈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하고, 일본시리즈에서도 3차례 등판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오승환은 지난해 11월 3일 귀국해 자선행사 등에 참가했다.

올 시즌을 위해 일본으로 향한 오승환은 "블론세이브를 줄이면서 팀 우승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지난해보다 구속(최고 157㎞)이 더 나오고, 높은 구속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구속과 구위에 대한 의욕도 드러냈다.

또 괌에서 진행한 개인 훈련에 대해 "체력 훈련에 많은 신경을 썼다. 음식조절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힘쓰면서 만족스러울 정도로 체력을 키웠다"며 "체지방을 낮추면서 원하는 체중에 도달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박태환 도핑 양성' 외신도 대서특필

"깔끔한 이미지 퇴색" vs "주사 놓은 병원 책임"

'마린보이' 박태환(26·인천시청·사진)의 도핑 양성 반응 소식에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은 "박태환은 깔끔한 이미지와 모범생 같은 외모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로 '마린보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며 "그러나 도핑 양성 반응으로 그런 이미지가 다소 퇴색된 것으로 보인다"고 27일(한국시간)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기에 앞서 진행된 국제수영연맹(FINA)의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12월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수영 전문 잡지 '스위밍월드매거진'은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는 선수가 도핑에 적발됐다"며 박태환의 금지약물 검출 소식을 전했다. 이 잡지는 중국의 대표적 수영선수 쑨양(24)도 최근 도핑 적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박태환과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하지만 박태환은 "한 병원에서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며 "수차례 주사에 금지약물 성분이 있지 않은지 물었고 문제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이 주로 훈련했던 호주의 유력지 시드니모닝헤럴드 역시 병원에서 문제없다며 놓아준 주사 때문이라는 박태환 측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이와 관련, 세계반도핑기구(WADA) 관계자는 "박태환 같은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은 대회 참가 여부와 별도로 수시 검사를 받는다"며 "징계 등 제재 수준은 청문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에 대한 청문회는 2월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박태환이 지난해 7월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탓에 도핑테스트에 걸린 것으로 보고 병원측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다.

/김민준기자

코비 브라이언트 코트 떠나나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가 결국 수술대에 오른다.

AP통신은 27일 브라이언트가 찢어진 오른쪽 어깨 회전근을 치료하기 위해 28일(현지시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며 2014-2015 NBA 시즌을 접게 됐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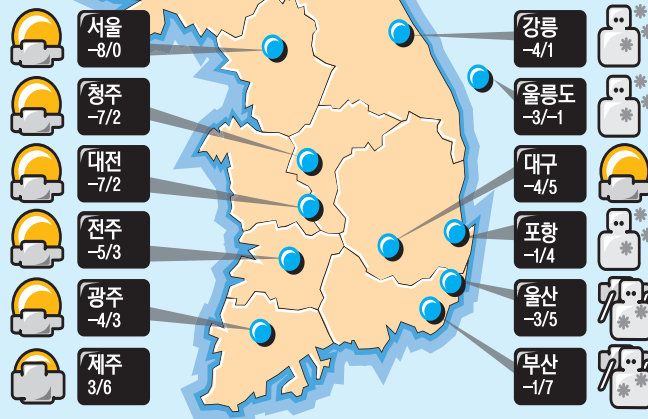
브라이언트는 37살의 나이에도 올 시즌 평균 22.3점, 5.7리바운드, 5.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통산 득점에서는 3만2482점을 넣어 NBA 역대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브라이언트가 부상 때문에 시즌을 접은 것은 세 시즌 연속이다. 이런 이유로 NBA에서 19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는 브라이언트가 선수 생활을 그만 둘 것이라는 관측이 솔솔 나오고 있다.

/김민준기자

직원들 줄퇴사로 혼란스러워 제3자의 시선으로 접근하라

Q Hey 캣우먼!
직장 3년차인 여자입니다. 첫 직장생활이고 이래저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직장 3년차가 고비라고 하지만 회사 분위기가 요즘 너무 안 좋네요.
서른 여명 정도의 회사인데 이 가운데 오래 일한 사람이 그만두면서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그만두고 있습니다. 7,8년차 된 사람들이 서너 명 줄지어 회사의 부조리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나가니 그들이 승자 같고 남아있는 저 같은 사람이 패배자 같아 마음이 붕 뜨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요. /복숭아

A Hey 복숭아!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처럼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합니다. 회사의 부조리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생겼다기보다 그만둔 사람들에게 더 밀접한 악영향을 미친 사안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또 표면적으로는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고 하더라도 줄지어 그만둔 사람들 저마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다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기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말을 하진 않고 회사 탓을 하고 나가지만요.

파도가 저만치에서 밀려올 때는 휩쓸리기보다 내 힘이 닿는 한 그 파도를 일단 넘기고 봐야 합니다. 바다는 한동안 잠잠할 수도 있고 계속 험한 파도가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파도를 넘을 때마다 여러 관점과 여러 감정을 느끼면서 조금씩 직장인으로서 단단해져 가게 됩니다.

당신이 곧 알게 될 것은 아무리 회사에서 오래된, 꼭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퇴사했다 하더라도 회사라는 곳은 또 어떻게든 알아서 굴러간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눈 질끈 감고 행동하기보다 가만히 숨죽이며 이 정황을 제3자의 서늘한 시선으로 관찰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1		3					
	5			8				3
		8		4		6		
		1	7				5	9
				9				
2	7				6	3		
		4		2		7		
3				6			9	
					3		4	6

9								
					4		8	9
	1			9		4		2
5	2			7				4
	7		8		9		2	
1				6			3	7
4		3		5			6	
6	5		9					
								3

스도쿠 정답

9	1	6	3	5	2	4	7	8
4	5	2	6	8	7	9	1	3
7	3	8	1	4	9	6	2	5
8	6	1	7	3	4	2	5	9
5	4	3	2	9	8	1	6	7
2	7	9	5	1	6	3	8	4
6	9	4	8	2	5	7	3	1
3	8	7	4	6	1	5	9	2
1	2	5	9	7	3	8	4	6

9	3	4	7	8	2	5	1	6
2	6	7	5	1	4	3	8	9
8	1	5	6	9	3	4	7	2
5	2	8	3	7	1	6	9	4
3	7	6	8	4	9	1	2	5
1	4	9	2	6	5	8	3	7
4	9	3	1	5	7	2	6	8
6	5	2	9	3	8	7	4	1
7	8	1	4	2	6	9	5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바리스타에 도전할까 합니다 긴 안목으로 끈기있게 일해야

Q 궁금녀^^여자 86년 7월 20일 음력 저녁 8시20분경

서른이네요. 86년 음력 7월 20일 저녁 8시 20분경 여자입니다.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작년에 의류 사업으로 타이밍이 안 좋았는지 잘 안되어 작년12월 한 달 전에 접었습니다.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요.. 뭘 해야 될는지 답답합니다. 여태 계속 의류 쪽에 관심이 많아 의류매장에서만 일했는데, 다른 분야로 가면 다시 배워야 하는 단계라 막막하네요.. 바리스타 쪽으로도 해보고 싶고.. 전 뭘 해야 잘 풀릴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사주란 아주 작은 의미로는 한 인간의 인생 로드맵(Road map)입니다. 하지만 사주의 본래 의미는 인간이라는 사회를 나타내는 시스템이므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고립된 사주로 삶을 해석한다면 놓치는 것이 많게 됩니다. 다들 아는 얘기를 해보겠는데 직업을 선정할 때 자신의 성정과 운이 맞아야 성공을 할 수가 있으며 차선책으로는 자신이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선배들께 진로를 묻고 사주풀이를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섬유, 비철금속이 적합한 기에 의류나 액세서리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삼형이라는 역동적인 기운이 존재하므로 영업이나 판매도 좋겠으나 기술을 습득해야 재물과 합을 이루게 됩니다. 바리스타 또한 기술이니 환영할 일이지만 긴 안목으로 끈기 있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근면하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는 남다른 근기(根氣)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다소 냉정해보이지만 성격이 꼼꼼하고 향후 다가올 일에 대한 생각이 많은 편인데 남의 일로 인한 걱정이나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생일에 신금(辛金)은 흑백(黑白)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호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지(日支) 편인(偏印)은 쉽게 포기하기도 하여 결실을 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축인오(丑寅午)탕화(湯火)의 기운이 내재하여 때때로 비관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2015년은 곡각살(曲脚殺)로 일 년 내내 운전에 유의하고 신중해야하며 짧게 배운 것으로 소규모의 창업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월 28일 (음 12월 9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긍정적인 생각이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60년생 초조해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72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되도록 피하세요. 84년생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49년생 기분전환이 필요한 하루니 회포를 푸세요. 61년생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손해 볼 수 있어요. 73년생 화해하는 하루이니 먼저 사과하면 좋습니다. 85년생 학업이나 일에 큰 성과가 있어요.

50년생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입니다. 62년생 막연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74년생 아무리 싫고 화가 나는 것도 견디면 보약이 됩니다. 86년생 엎지른 물은 다시 담지 못하니 빨리 잊는게 좋습니다.

51년생 성실하게 준비하면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63년생 되도록 외출은 삼가하는게 좋습니다. 75년생 직장이나 바깥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87년생 외출하면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52년생 행운이 따르지만 김칫국부터 마시진 마세요. 64년생 재물운이 좋은 하루입니다. 76년생 인내심을 갖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88년생 기회는 다시 찾아 오게 마련입니다.

53년생 노력해도 잘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65년생 구관이 명관입니다. 77년생 서두르지 말고 순리에 맞게 실천하세요. 89년생 잠시 뜻을 접고 기다리면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54년생 겸손하게 행동하면 기회가 찾아옵니다. 66년생 욕심내지 않으면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8년생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90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으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55년생 사소한 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67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기다리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79년생 기쁨은 함께 나눌수록 더욱 커집니다. 91년생 주위와의 조화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56년생 일이 꼬여도 조급해 말고 느긋하게 대처하세요. 68년생 계획대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80년생 거래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92년생 주위를 살펴보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57년생 주변에 동요되지 말고 중심을 잡으세요. 69년생 무리한 욕심보다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81년생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93년생 주위의 간섭으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58년생 망설임보다는 자신감 있는 추진이 필요합니다. 70년생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82년생 새로운 시도는 피하고 마무리에 힘쓰세요. 94년생 서두리지 말고 차근차근 노력하세요

59년생 기대하던 결과가 없더라도 실망은 금물입니다. 71년생 노력만큼 결실을 맺기는 힘듭니다. 83년생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친구와 의논하세요. 95년생 서두르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있었다"

검찰, 노조 설립 방해 인정… 임직원 약식기소

삼성그룹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차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삼성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적용해 조모 부사장과 이모 상무, 그리고 김모 차장 등 임직원 4명을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은 사원교육에서 노조 설립을 지원한 민주노총 등을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2011년 7월 삼성노동조합(현 금속노조 삼성지회)이 설립신고를 하자 전사원 대상 강연을 열어 '민주노총이 삼성에 노조를 세우려는 이유가 조합비 700억원 때문이다' 혹은 '한미 FTA 투쟁 등에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해 산하 기업노조가 탈퇴한다'라는 취지로 교육했다.

검찰은 삼성에버랜드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목상 사유와 달리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노조와해 문건 의혹과 관련해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동안 수사에서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문건을 폭로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검찰에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관계자들 역시 자사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삼성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그룹 차원의 노조 파괴 전략이 시행됐음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신분 상승 갈수록 어려워

보사연,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발표

저소득층이 빈곤을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실시된 9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를 담은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조사인 8차년도 조사에서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년도 조사에서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빈곤 탈출률)은 22.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를 넘은 1차연도와 2차연도의 빈곤 탈출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셈이다.

또 저소득층에서 22.3%가 중산층으로 이동했지만 이 역시 지난 8년간의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중산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소득층으로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경우도 0.3%에 그쳤다.

반면 고소득층이 계속 고소득층에 남을 확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8차년도 조사에서 고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9차연도 조사에서도 고소득층을 유지한 사람은 77.3%로 직전 조사(7차→8차)의 75.2%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가난한 사람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신 부자는 계속 부유한 상태를 유지하기 쉬운 상황이 점점 더 굳어지는 추세인 것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설 앞두고 바빠지는 손길 민족 대명절 설이 다가오는 가운데 27일 경기도 오산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평소 물량보다 50% 이상 늘어난 하루 25만개 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온힘'

복지부, 근절대책 마련

정부가 논란이 됐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6일 당정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협의했던 내용을 보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먼저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인성과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원장·교사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으며 아동학대 행위자인 원장이나 교사를 영구 퇴출키로 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을 공개(명단 공표) 하고 어린이집에서 교사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개선했다.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부모의 CCTV 열람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되는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회 등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인사

■ 행정자치부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이재영 ▲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장 남궁영 ▲ 세종청사 관리소장 조소연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과장급 전보 ▲ 충청남도 전출 부이사관 서철모

■ 농림축산식품부

◇ 신규임용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김남수 ▲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이종천

■ 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김형환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진현
◇부이사관 승진 ▲본청 전산운영담당관 이창숙 ▲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정목 ▲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한년 ▲본청 세원정보과장 정재수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석현
◇서장급 전보 ▲본청 법인세과장 송바우

■ 국가보훈처

▲ 국립대전현충원장 권율정

■동반성장위원회

▲ 위원회운영부장 박노섭 ▲ 성과공유확산부장 조태용 ▲ 적합업종지원부장 이우용 ▲ 동반성장지원센터장 한창훈 ▲ 적합업종운영부장 윤형수

■ 한국능률협회·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능률협회> ◇ 상무 승진 ▲ 가치창조부문장 임상철 ◇ 이사 승진 ▲ 인재개발부문장 문정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 상무 승진 ▲ 컨설팅2본부장 이립 ▲ 경영기획실장 최돈모

■ 우리은행

◇지점장 승진
▲원곡동 외환송금센터 김장원

■해양경비안전본부

◇ 치안감 승진 ▲ 남해해경안전본부장 남상욱 ▲ 서해해경안전본부장 송나택 ▲ 중부해경안전본부장 김두석
◇ 경무관 승진 ▲ 해경안전본부 해양장비기술국장 이원희 ▲ 남해해경안전본부 안전총괄부장 류춘열 ▲ 해경안전본부 대기 윤성현
◇ 경무관 전보 ▲ 동해해경안전본부장 박찬현 ▲ 제주해경안전본부장 이평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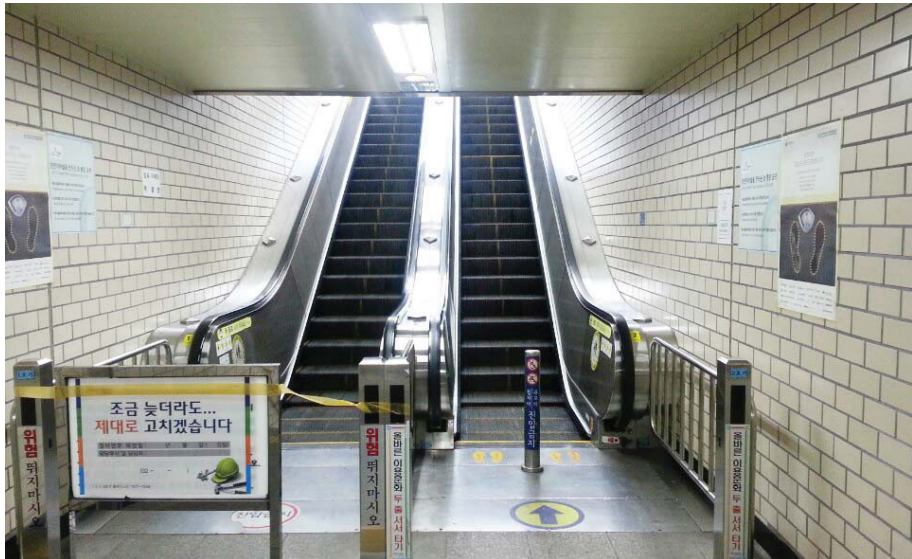
■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 경감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경비구난과 박치영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장비관리과 박동훈 ▲ 〃 화순경비안전센터 이승관 ▲ 〃 1506함 강근봉

■ 광운대

▲대학원장·광운한림원장 이원호 ▲정보콘텐츠대학원장·전자정보공과대학장 김남영 ▲경영대학원장·경영대학장 임영균 ▲교육대학원장 박경애 ▲상담복지정책대학원장·사회과학대학장 박종구 ▲환경대학원장·공과대학장 강선홍 ▲건설법무대학원장·법과대학장 권태복 ▲자연과학대학장 허민 ▲동북아대학장 임종수 ▲인문대학장 최기용 ▲교양학부장 이강성 ▲기획처장 김종헌 ▲교무처장·교수학습센터장 김선웅 ▲학생복지처장·체육부 체육실장 권헌영 ▲입학처장 부경희 ▲대외국제처장 서상구 ▲총무처장 임종대 ▲관리처장 직무대리·동해문화예술관장 김대식 ▲정보통신처장 손채봉 ▲산학협력단장 정용진 ▲중앙도서관장 이향철 ▲정보과학교육원장 신상진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민상원 ▲언어교육원장 김홍기 ▲광운미디어콘텐츠센터장 문상현 ▲연촌재 관장 신만중 ▲대학신문사 주간 한종희

부고

▲ 안상문(감사원 특별조사2과장)씨 별세, 박민정(예술의전당 공연부장)씨 배우자상, 안상길(신한은행)·상영(한화자산운용)씨 형님상 = 26일 오후 2시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오전6시30분. 02-3410-6903
▲ 박옥순 씨 별세, 권석준(강원CBS 보도제작국장)씨 모친상 = 27일 오전 4시 56분,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010-2569-2583
▲ 송찬우(전 중앙승가대 교수)씨 별세 =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뉴타운장례식장 11호, 발인 28일 오전 8시 02-909-4444
▲ 최순이씨 별세, 이석복·석관·석오 모친상, 이은정(KBS 보도국 과학재난부 팀장)·원준(SK텔레콤 네트워크 전략본부 차장)씨 조모상 = 26일, 대구 드림병원 장례식장,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53-475-4444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1·8번 출구 방면에 있는 폐쇄된 에스컬레이터(왼쪽).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3번 출구에 있는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

노인·장애인 등 자칫 사고위험까지

서울시 에스컬레이터 고장 현황조차 파악 못해

서울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고충이 크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역사 내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협소한 통로로 사람이 몰릴 때는 자칫 사고 위험까지 있다.

한번 고장나면 수리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체계적이고 책임있는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해당 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나 몰라라는 입장이다. 감독관청인 서울시도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대한 현황 자료나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탑승 퍼포먼스까지 하며 "지하철은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관리들의 머릿속에서 지하철은 이미 잊혀진 존재인 것 같다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다.

26일 오후 1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버젓이 있지만 시민들이 탑승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라고 써 붙인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삼삼오오 모인 노인들 사이에선 '도대체 언제 고쳐지냐' '다리가 아픈데 어떻게 계단을 밟고 올라 가냐'등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출구 근처엔 다른 출구나 계단도 보이지 않아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밟고 올라가야 했다.

젊은 사람들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밟고 올라갔지만 노인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계단을 오르다 섰다를 반복하다 겨우 출구 정상에 오르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6-1번 출구로 다시 이동해야 했다.

김복자(78·여)씨는 "에스컬레이터가 망가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역무원에게 건의했지만 건성으로 듣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김주명(67)씨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작동이 안 되면 짜증난다"며 "국민 세금으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날 오후 4시30분께 5호선 광화문역 1·8번 출구 방면.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고장나 폐쇄됐으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는 점검 중이었다.

발목에 기브스를 한 20대 젊은 여성도 지팡이를 짚는 70대 노인도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이현복(75)씨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타기 힘든 역사 엘리베이터보단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에스컬레이터까지 망가지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출구로 나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에스컬레이터를 점검 중인 업체의 한 기술자는 "에스컬레이터의 부품들이 오래돼 자주 고장 난다"며 "원상 복구 시키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말했다.

관할 당국은 고장 나거나 점검 중인 승강기에 대해 일일이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1~4호선 역사는 서울메트로, 5~8호선 역사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승강기가 망가지면 해당 역사가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한다. 굳이 우리 공사가 승강기 고장 여부를 파악하는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을 통해 박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박 시장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오랑'이를 보호해주세요~ 27일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임순례 대표와 회원들은 A동물원 쇼 공연으로 학대받고 있는 '오랑'이의 보호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프리 오랑(Free Orang)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 관세청 간부 투신자살

'관피아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받아

'관피아'(관세청+마피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전직 관세청 간부가 자택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관세청 간부 오모(63)씨가 지난 25일 오전 11시10분께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진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오씨는 자택 안 컴퓨터 화면에 한글파일을 띄우고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기 싫다. 미안하고 괴롭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들은 오씨가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으며 괴로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오씨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업체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1783억원 규모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말 관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관세청 사이의 유착 의혹을 포착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국내 169개 기관과 수출입업체, 선사 등 26만개 업체와 연계해 무역과 물류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선준기자

청와대 폭파 협박범 귀국 후 이송

경찰, 공항서 체포영장 집행

청와대와 대통령 사저 등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강모(22)씨가 부친과 귀국한 후 경기경찰청으로 이송됐다.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착륙 15분 뒤 계류장에 모습을 드러낸 강씨에 대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들은 강씨 주변을 통제했으며 강씨는 점퍼에 달린 모자와 목도리 등으로 얼굴를 감쌌다.

정의화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한 4급 보좌관인 강씨의 부친은 "아들과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아들이 죄를 인정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